

사람도, 자연도  
다 같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Fertilizer & Global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용 토양개량제



생생토 골드 20kg

- 토양개량효과 증진
- 천연부엽토(강원 홍천) 30% 함유로 가스피해 없는 안전한 유기물과 영양성분 공급
- 유용 토양 미생물로 병해예방
- 보습제함유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징해예방
- 뿌리활차과 원기회복으로 수목 고사율 감소



조경용 고행비료 20kg

- 비료효과 기간이 일반 복합비료의 3~4배
- 3년이상 "성목 관리용 비료"
- 조개탄 모양으로 시비가 편리
- 수목의 푸름, 꽃빛깔을 신선하게 유지
- 황산칼리 함유로 하고현상 및 염도피해 방지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증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릉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 조경수

2024. 겨울호 Vol.185





동화기업 · 삼성물산 협력업체

# 대우임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대표 구분찬 전무 구분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소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PLAUM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 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4구(분리형) (4.5ℓ, 6.4ℓ)**  
· 크기 : ϕ200 x H200 / ϕ246 x H210  
· 용도 : 대형묘목/소형 조경수 생산용

**시설양묘용기- 6구**  
· 크기 : 1,350ml (ϕ120\*ϕ80) / 420 x 280 x H 170  
· 용도 : 소나무, 편백 2년생 등

**화분140(블루베리재배용기)**  
· 크기 : 1400ml(ϕ830 x H450)  
· 용도 : 블루베리 재배전용용기

**화분받침대(6구,9구,20구)**  
· 크기 : 6구-450 x 300 x 80  
9구-382 x 382 x 79  
20구-470 x 377 x 80

**삼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 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삼목 생산용

**화분 4.5, 7, 12, 19, 25**  
· 크기 : 4.5 ℓ, 7.0 ℓ, 12.0 ℓ 25.0 ℓ  
· 용도 : 소, 중형 조경수 생산용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ϕ335xH305 / ϕ430xH350  
ϕ470xH345 / ϕ520xH375 / ϕ583xH420  
· 용도 : 중, 대형 조경수 생산용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 ℓ)	품 목	크 기 (가로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ϕ200/4.580	화분4.5	ϕ211xϕ200xH200	4.5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ϕ120/1.350	화분6.4	ϕ246xϕ230xH200	6.4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ϕ109/0.863	화분7	ϕ257xϕ200xH200	7.0 ℓ	색상5종
12구	450x340x170	ϕ102/1.050	화분12	ϕ300xϕ270xH250	12.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ϕ75/0.510	화분25	ϕ385xϕ358xH300	25.0 ℓ	검정색
24구(일체형)	420x280x140	ϕ64/0.310	화분140	ϕ830xϕ750xH450	140.0 ℓ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20형	ϕ335xϕ250xH300	19.0 ℓ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35형	ϕ427xϕ335xH350	35.0 ℓ	
88구	440x320x65	ϕ36/0.043	조경포트 45형	ϕ470xϕ400xH345	46.0 ℓ	
삼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조경포트 65형	ϕ520xϕ450xH375	65.0 ℓ	
삼목상자160	520x370x160	삼목상자	조경포트 95형	ϕ589xϕ507xH427	95.0 ℓ	
삼목포트176	535x370x60	30*30/0.036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 등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국일화학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볼보의 새로운 미래 -

# ECR25 **ELECTRIC**

www.volvoce.co.kr



캡 타입

캐노피 타입

대버킷,  
협폭버킷  
기본 제공

• 운전중량 : 2,660kg  
• 버킷용량(표준) : 0.11m³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Volvo Electric Excavator 볼보 전기 소형 굴착기 특별가 렌탈 서비스

이제, 신제품 전기 배터리 소형굴착기 ECR25를  
볼보 렌탈 서비스로 부담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ECR25 ELECTRIC 캐노피타입 - 장기, 단기 렌탈 서비스

구분		기간별 렌탈료(특판가)		
장기 렌탈	기간	24개월	36개월	60개월
	장비만 렌탈시	130만원	120만원	100만원
	장비+실외용 급속충전기 렌탈시	150만원	140만원	120만원

\*상기 장기 렌탈 서비스는 렌탈 만료시 장비 인수 조건이며, 인수시 잔금은 조건 별로 상이함.

구분		기간별 렌탈료			
단기 렌탈	기간	1일	7일	15일	30일
	장비만 렌탈시	13만원	80만원	140만원	200만원
	장비+실외용 급속충전기 렌탈시	15만원	100만원	160만원	240만원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이 가능한 경제적인 단기 렌탈 서비스"

\*\*본 렌탈 서비스는 장비 출고에 따른 재고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제 입고시 예약 순서에 따라 상담 후, 렌탈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혜택 1.**  
장비 탁송 및 반납시 운송비 전액 지원  
(제주도 및 도서 지역 제외)

**혜택 2.**  
1개월 이상 렌탈 서비스이용 전고객  
볼보 오리지널 ECR25 Elec 모형 증정



Volvo ECR25 오리지널 모형 1:32



친환경 ELECTRIC 솔루선 기술 적용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ELECTRIC 배터리 충전 타입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컴팩트한 ELECTRIC 구동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시간 절감. 점심 시간 또는  
운유 시점 고속 충전 가능.



볼보 일렉트릭 머신 관리 앱 EMMA  
볼보가 제공하는 Electric Machine  
Management App은 스마트폰  
일상 장비관리가 가능합니다.

렌탈·구매  
전문 상담

볼보 전기굴착기 지원팀  
070-5088-3892

V O L V O

MARU  
P L A N T S  
농업회사법인 조경마루

# 재배가 달라지면 화분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럽1위 컨테이너 화분 코스모포트



★ 고객들의 다양한 후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화훼종묘(주), 대림원예종묘(주), 서광원예종묘(주), 성진원예자재, 수성조경농원, 화분프라자, 상부농원, 농업회사법인바움랜드(주), 오랑쥬리, 그린컴퍼니, 남사야생화, 가든팜, 상희화분, 금강원예종묘, 바른원예종묘, 화수조경, 강릉미림꽃농장, 세화화분, 서울장미원, 정원사의오랑쥬리, 금산묘목나라, 농업회사법인(주)정다운원예묘목농원, 대성식물, 농업회사법인, 영풍원예, 백두화분, 호남조경수유통, 영광야생화, 대림원예가든센터, 포항목재, 학구식물원, 목하원예조경, 천안칼라관목(주), 복남이네야생화, 예원조경건설

제품정보



판매/비즈니스 문의 070-8802-3058

# 컨테이너 재배는 식물의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써클링 방지, 공기 순환, 배수성 탁월, UV차단, 튼튼한 내구성



에어포트 전문 농장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농장을 시청해보세요!



주문·상담 문의

☎ 063-536-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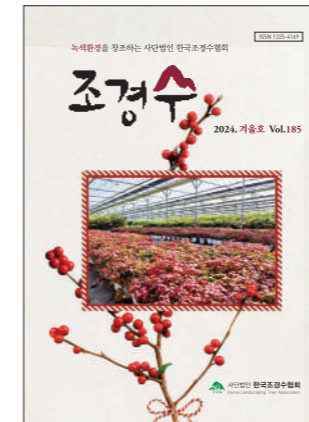
(주)지에스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신길 3

# Contents

2024. 겨울호 Vol.185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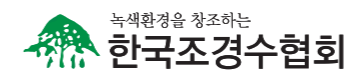


세종식물원 농업회사법인(주)  
세종시 전의면 김치선로 90

발행인 겸 편집인 윤수근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 1월 21일  
발행일 2024년 12월 18일  
(통권 제185호 겨울호)

발행 및 편집주간 여운식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07	협회소식		
30	지회소식		
32	회원사탐방	경기지회 「세종식물원」	• 박정기
42	조경수 특집	회화나무	• 이노혁
54	조경수 유지관리	천공성 해충의 생태와 방제 · 하늘소	• 정규중
66	새로운 조경수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속 2편	• 김종근
78	조경수 기고	천도제 받은 삼산리 소나무	• 이용직
82	역사 속 나무 이야기	이팔의 난 때 인조는 피난길에 밤나무의 밤 맛에 흠뻑 빠졌다?	• 신현배
88	노거수 산책	거제 장승반도(양지암) 팽나무숲	• 박정기
94	회원사 동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III)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 +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조경수 생산 및 녹화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 생산 및 녹화 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상토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조경자재 품목별 단가가 표시된 주문서는 협회 홈페이지 ([www.klta.or.kr](http://www.klta.or.kr))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주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문서는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보내주셔도 되고, 회원사에서 직접 협회사무국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mailto:klta@klta.or.kr)) 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요품목 : 녹화마대, 녹화끈, 고무바, 반생, 조경용 고품복합비료, 코아네트, 황마씨네트, 씨거적, 컨테이너 재배용기, 컨테이너 전용상토 등



- 01. 일 시 2024년 10월 18일(금)
- 02. 장 소 경주엑스포공원 경주타워 앞
- 03. 내 용 송병수 이사 국무총리 표창 수상



NEWS / 2024년 제2차 이사회

01.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11:30 ~ 12:40

02. 장 소 대전 태화장

03. 참석자 36명 (위임장 8명 포함)

04. 내 용 보고안건

- 제1호 전차 이사회 의사록 낭독

- 제2호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의결안건

- 제1호 협회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 허춘일 부회장

위원 : 노종식 감사, 최성락 지회장, 박미애 지회장, 조기철 이사

- 제2호 장학회장 임기 개정 : 2년 ->3년

- 제3호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 제명



NEWS

**제9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및 박람회**

- 01. 일 시 2024년 11월 4일(월) ~ 5일(화)
- 02. 장 소 KT대전인재개발원, 국립세종수목원
- 03. 주 최 (사)한국조경수협회
- 04. 후 원 산림청
- 05. 참석자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원 및 가족, 내빈 등 500여명
- 06. 표창수상자 산림청장 : 김도곤 부회장, 권기택 이사  
공로패 : 박정기 이사
- 07. 정책강의 및 우수사례발표  
산림정책 및 산림소득지원사업 :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조경수 생산실태와 유통 :  
김길수 (사)한국조경수협회 호남조경수유통센터 대표  
컨테이너 조경수 가든센터 KLTreemarket 운영사례 :  
이근형(주)옥담 대표
- 08. 조경수(컨테이너) 및 조경자재 전시 박람회
- 09. 반려수(樹) 나눔행사
- 10. 국립세종수목원 견학



개회선언 김규열 (사)한국조경수협회 명예회장



대회사 윤수근(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NEWS

제9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및 박람회



축사 임상섭 산림청장



축사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축사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산림정책 및 산림소득지원사업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NEWS

제9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및 박람회



조경수 생산실태와 유통 김길수 (사)한국조경수협회 호남조경수유통센터 대표



컨테이너 조경수 가든센터 KLTreemarket 운영사례 이근형(주)옥담 대표



무궁화 홍보 박정이 (사)한국조경수협회 무궁화 홍보대사



산림청장 표창 왼쪽 김도곤 부회장 오른쪽 권기택 이사

NEWS

제9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및 박람회



(사)한국조경수협회장 공로패 박정기 이사



반려수(樹)나눔



조경자재전시



기념촬영

NEWS

제9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및 박람회



기념촬영



국립세종수목원 견학

NEWS

조경수 대(對)중국 수출 전망과 과제



공솔조경 대표 박정기

들어가며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경수 해외 수출상담회 목적으로 중국 시장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산림청이 지원하고 협회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함께 수행한 수출상담회는 백승대·송승용·이강대 고문, 봉기종 부회장, 이학중·박정기 이사, 이근형 감사, 김진걸·송인자·정준호 지회장 및 여운식 상근부회장과 최영두 부장이 참가했고 수출입조합 이경일 차장이 동행했다. 현지에서 청림종합무역 장철 대표가 조경수 생산 및 수출입 업체와 조경수 유통시장을 안내하고 바이어 상담회를 주선하였다. 파견지역과 주요 방문지는 저장성 닝보(寧波) 가하원에·홍윤원에, 항저우(杭州) 썬허원예유한공사·홍월원예유한공사, 장쑤성 창저우(常州) 샹시화훼시장, 우시(無錫) 구롱만화성구, 상하이(上海) 진산식물원 등지이다. 조사단은 협회 회원사 수출유망 수종을 소개하고 현지 수입

## 조경수 대(對)중국 수출 전망과 과제

희망 수종과 수형·규격을 조사하고, 중국 조경수시장 동향과 수입산 조경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였다. 현지 조경수 재배포지 및 전시장, 나무시장 조사에서 생산과 관리 방법 및 수입산 또는 자국산 수목의 유통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조경수 수입·유통업체와의 상담회를 통하여 시장여건 및 해당 바이어의 요구를 파악하여 대(對)중국 수출 목표시장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한다. 필자는 수출상담회 출장에서 보고, 느끼고, 찾은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게재한다.

### 조경수 수출은,

지금은 조경 수요를 견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전만 못함은 불을 뿜고 같다. 이촌향도(移村向都)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은 요원하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에서 조경은 당장 먹고사는데 필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가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조경은 국민 생활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산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경산업 장기불황에 업역은 위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싹트고 불황에도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시대 변화를 읽고 시대를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 '조성(식재)'에서 '유지(관리)'로 바뀐 사회경제에 적응이 필요하고, 조경수 지고 정원수 뜨는 시대 흐름을 타야한다. 생력화(省力化)를 이루는 컨테이너 재배는 필수이고,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조경수 효용을 넓혀야 살아남는다. 대면거래에서 온라인거래로 판매방법을 혁신하고, 회원사간 협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조경수유통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다변화 전략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글로벌 조경문화 향상과 국가간 교역 확대라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조경수 수출은 늦은 감이 있다. 출발은 했으나 연착륙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야든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는 데는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내 재배수종과 해외 재배수종의 불일치, 위도에 따르는 기후환경의 부적응, 국내와 현지와의 선호수종과 수형



의 괴리, 내수판매 대비 수출판매의 낮은 가격대, 규격 특히 '특수목'으로 불리는 대형목 수관 폭과 뿌리 분 크기와 포장 방법의 한계와 애로점, 수출 절차에 따르는 번거로움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우리 업

역의 장기불황을 고착시킬 것인가. 회원사 농장의 간판목이나 팔다 남은 나무를 '평생 내 나무'로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땀감을 베어 쓸 것인가. 고민은 짧을수록 좋다. 판매가 전제되는 재화(財貨)는 선순환이 생명이다. 재고는 동맥경화와 다름 아니다. 업역의 불황을 타개하는 조건이나 경쟁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관행을 고집한다면 패착이다. 우선 조경수 수출 노하우를 가진 멘토와 길라잡이를 지렛대 삼아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를 피하는 정보와 지원도 적지 않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시작이 반, 지속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 연착륙하게 되고 단골손님(수출루트) 확보되면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조경수 수출은 조경산업 불황에 따른 조경수 판매부진을 타개하는 대안으로써 그 과정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시장다변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중국경제, 중국 조경수시장

중국(china)의 국호는 中華人民共和國(PRC)이다. 1949년 10월 1일 건국하여 이후 국경절(國慶節)로 긴 연휴를 가진다. 면적은 약 960km<sup>2</sup>이며 한반도의 44배, 인구는 2023년 기준

NEWS

조경수 대(對)중국 수출 전망과 과제

약 14억 967만 명이다. 국민은 한족(漢族)과 총인구의 8.5%를 차지하는 55개 소수민족이다. 22개 성(省)과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를 두고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한다. 국토 면적이 세계 3위이지만 자국 내 시차를 두지 않는다. 중국은 넓고, 해발표고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국토는 다양한 기후대를 가져 생물다양성 지수가 높다.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중국인이다. 2,400만 사는 상하이로 비롯하여 대도시 인구밀도 높지만 전국토에 비교적 고루 분포하여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은 미미하다. 반면 빈부격차는 심한 편으로 상위 5% 부유층은 남북한 인구와 맞먹는다.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은데다 고학력 고임금부터 저학력 저임금까지 직업군이 다양하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여 관치경제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지금 '중국경제는 위기다.'는 전문가의 중론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과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져 금융위기론도 들린다. 특히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워 중국경제를 견인하던 부동산·플랫폼(전자상거래)·사교육 기업을 규제하는 바람에 자산가치(GDP)가 무려 45% 하락했다는 설도 있다.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찬바람이 불었다. 그렇다고 '중국경제는 1~2년 내 폭발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최근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정책 의지가 읽힌다. 나아가 미래산업·신기술·우주개발 등 과학기술에 기반



을 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태양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산화 비율과 세계시장 점유율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14억 넘는 인적자원과 희소가치 높은 원자재

자원은 성장잠재력이자 세계를 흔들 수 있는 히든카드이다. 중국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세계경제의 1/6 규모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 조경수시장 역시 면적과 인구에 비례한다. 불황에 쪼그라진 시장이라도 우리나라 열다섯 배 이상 규모이다. 나무는 자연생태 구성물이자 인류문화의 산물이다. 조경수는 산림수목과 달리 문화의 산물이다. 한 자문화권 한·중·일 사람들의 수목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꽃과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여 관상(觀賞)한다. 그런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종·성상·수형 다양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도드라진다.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속에서 다양한 민족, 또 외국인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 이리라. 그리고 전통수목을 좋아하면서도 새로운 수종과 수형을 도입한다. 특히 정신적 풍요를 상징하는 붉은 색 꽃이나 잎을 가졌거나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 꽃과 잎을 가진 수종을 선호한다. 그들이 팔(八)과 함께 좋아하는 숫자 육(六)과 발음이 같은 버드나무(柳)를 좋아하는 연유로 '수양' '실' '처진' 접두어를 가진 수종을 선호한다. 외래수종은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고 화훼류는 네덜란드 수입 물량이 많다. 중국 조경수시장은 조경수·과수·분재·화훼류에다 조경·원에 자재까지 취급하지만 물량 면에서 조경수가 으뜸이다. 조경수는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하여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급된다는 이남향북(移南向北) 원리는 중국에서도 적용된다. 중국 조경수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규모에 있다. 장쑤성, 윈난성, 광둥성, 산둥성 등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에서 저리로 대여한 토지에 집단지구(集團地區) 단위로 생산자와 '경제인'이라 불리는 상인, 조합상인, 알선중개인, 수출입업체, 유통물류업자가 함께 유통시장을 형성한다. 최소 10만평에서 30만평을 넘는 규모이니 그 물량 또한 쉽게 짐작될 터이다. 최근 시장 동향은 컨테이너 재배 조경수 물동량이 많고 일본·한국·미국·스페인·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내 원거리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많다는 것이 현지 사람들의 전언이다. 조경수시장에는 중국경제 불황이 무색하게 제원과 수형이 우수하여 호가(呼價) 높은 '별장나무'가 많았다. 전시된 중·소교목 및 관목은 컨테이너(용기)에 담겨서, 중·대·특수목은 장기전시 가능하도록 뿌리분을 벽돌가벽(플랜트)으로 감싸서, 분재는 분에 담긴 채로 전시하였다. 조경수 생산과 판매 및 수출입

NEWS

조경수 대(對)중국 수출 전망과 과제

을 겸하는 재배포지(농장)는 가식장 형태로 복토하여 상식(上植)하고, 판매에 치중하는 전시장 위주 유통업체는 제초매트 위에 컨테이너(용기)에 식재된 상태로 전시하고 있었다.

대(對)중국 수출 유망수종

※ 수종 중국시장이 선호하는 수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단가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수종은 楓樹(풍수)로 통칭되는 단풍나무 중에서 청단풍(애기단풍), 홍단풍, 공작단풍(청·홍세열단풍), 紫薇(자미)\*배롱나무, 山茶(산다)로 통칭되는 동백나무 중에서 茶梅(차매)\*애기동백, 杜鵑(두견)으로 통칭되는 철쭉·영산홍·만병초, 梅子樹(매자수)로 통칭되는 매실나무 중에서 수양매실, 진백으로 통칭되는 향나무류(類), 紫杉(자삼)\*주목, 나한송, 섬잣나무, 해송(곰솔), 먼나무, 油橄欖(유감람)\*올리버나무, 겹벚나무, 금목서, 태산목,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 녹나무, 모감주나무, 유자와 감굴, 자엽자두, 황금회화, 납매, 소철, 백화등(큰마삭줄), 협죽도, 화살나무, 비파나무, 수사해당, 박태기, 회양목, 수국류(類), 삼지닥나무, 만첩홍도를 비롯한 복사나무류(類) 등이다. 현지에서 수입을 희망하는 수종은



우리 협회에서 여러 차례 공지한 청단풍과 홍단풍, 공작단풍, 배롱나무, 애기동백, 주목, 진백(향나무) 등이다. 그렇다고 위 수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열거한 수종 중에서 제원과



수형이 우수하거나, 그밖에 근연종(近緣種) 조경수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희망 수종에 집중하여 상품화 하되 수출유망 수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재선충 피해 우려로 소나무류 수입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

음에도 현지 나무시장에는 일본산(産) 나한송, 곰솔, 섬잣나무가 ‘가이즈카’처럼 수염층을 가진 큰 조형목이 분재분과 노지에 심겨 전시되어 있었다. 지금이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매년 전정이 가능하겠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관리 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홀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우(杞憂)는 아니리라. 한편 수종을 불문하고 화색(花色)이 흰 품종은 선호가 낮다.

※ 수형과 규격 현지 수입업체가 선호하는 수형은 수종을 불문하고 가지가 아래로 처진 수양형, 근경과 흉고 차이가 큰 초살도(梢殺度) 높은 수형, 몸통줄기가 굴곡졌거나 비스듬히 누운 수형, 지하고(枝下高) 낮은 수형, 강전정 상처가 없거나 잘 아문 자연수형, 지상부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수고(樹高) 높은 수형, 고접(高接)보다 저접으로 생육한 수형을 선호하고 단간과 다간에 따른 수형의 호불호는 미미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 조경수는 대부분 ‘별장나무’로 부유층의 넓은 정원에 심기거나 고급 다중이용시설에 팔려나가기 때문에 제원으로서 규격은 지표에서 50cm 높이 직경이 30cm 이상을 선호하는데 그 이하 규격

NEWS

조경수 대(對)중국 수출 전망과 과제

은 현지에서 수급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종에 따라 수형이 우수할 경우 20cm를 넘는다 면 가능하다고 한다. 수출하는 입장에서 대규모이 수익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적재량을 늘릴 수 있는 중간규격의 대량 수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재물로서 규격은 우선 컨테이너에 들어갈 크기 이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는 규격은 윗면이 개방된 오픈컨테이너에 넣어 최상단에 싣는 방법도 있다. 수출을 목표로 조경수 재배할 경우 수고와 수관 폭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수출 수목의 수형을 '분재를 확대한 특수목'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많은데 수형 못지않게 적재량을 늘릴 수 있는 수형과 규격, 그리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파절(破節)의 위험은 늘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조경수 수출 성공 전략은,

조경수 수출은 우리 협회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물론 분재와 치수(稚樹)와 달리 위도 이동에 따른 적응 문제와 대규모 수목 수출입 과정의 번거로움에다 수출가격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수 수출은 컨테이너 재배와 함께 선택이 아닌 필수, 산림청 지원에 따른 성과를 내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조경수 수출을 위한 전제는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 정보와 소통의 활성화, 기술 노하우 축적이다. 지회별로 해당지역의 유망수종을 회원, 비회원 가릴 것 없이 망라하고 이를 본회에서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요처와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지역 거점에 지표에서 50cm 높이 직경 20~40cm 수목의 집하장을 컨테이너차량 회차 가능한 곳에 조성한다. 집하장에는 수관조절과 뿌리돌림 수목을 컨테이너 입식하여 양생(훈련목)하면 수출전진기지가 되고 내수도 가능한 유통센터가 된다. 뒤쳐져 묵은 나무가 많은 조경수 농장 사정에 비추어 의지만 있으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나아가 수요처(바이어) 선호에 맞춘 수종과 수형을 발굴한다면 초입시장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한편 이용적 측면에서 수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수종(예:한국 고유종)을 치수부터 중령목까지 수

출하는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있다. 컨테이너 재배 양산체계를 갖춘 회원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조경수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다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과 대만 시장을 타진하고 중국도 기존 지역을 벗어나 산둥성에서 허베이성(河北省)까지 거래선 확대가 요구된다. 위도 차이가 적을수록 수목의 적응성은 높고 거리가 짧을수록 제비용은 낮아진다. 한편 수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모과나무, 석류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감나무 등과 재선충 선제방역을 전제로 섬잣나무의 수출 길을 여는 정책적 건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맺으면서

조경 업역 불황이 고착 되었다고 말하는 속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신화를 쓰는 회원사가 많다. 작은 규모에서 알찬 수익을 내는 회원사 또한 많다. 기회는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않아서 없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장은 넓고 할일은 많다. 중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양면성 동시에 보여주는 나라이다. 가깝고도 먼 중국을 '가까이 있는 선진국'으로 본다면 조경수 수출, 주저할 이유가 없다. 대(對)중국 조경수 수출은 일본이 먼저다. 그들은 특유의 조형기술로 골목마다 그림 같은 나무들이 즐비하였는데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은 시시때때 전정할 수 없었으니 험값에 뽐혀 중국과 대만에 팔려나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은 나갈 만큼 나갔으니 다음 바통은 한국 몫이다. 중국 조경시장이 우리에게 러브콜 한다. 대중국 조경수 수출은 업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동시에 협회와 회원사 활로를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농장에 수출 가능한 나무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



NEWS

## 2024년 제3차 산림분야 민생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 01.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5:00 ~ 17:00
- 02. 장 소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대회의실(17층)
- 03. 참석자 윤수근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및 임업 협·단체장, 임업인, 임상섭 산림청장, 국·과장
- 04. 내 용 소나무재선충방제, 임업직불금, 산림경영, 임도, 체류형 쉼터 조성 등 다양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NEWS

## 2024년 제3차 이사회 유연송 부회장 제34대 회장 추대 선출

- 01.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1:30
- 02. 장 소 계룡스파텔 B1 백제홀
- 03. 내 용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유연송 부회장 추대 선출



회장 추대증 전달 왼쪽 허춘일 부회장, 제34대 회장으로 선출된 유연송 부회장



NEWS

**경남중부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경기 노선정비**

- 01.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 10월 1일(화)
- 02. 장 소 경남 창원군 부곡면 경기노선 25km
- 03. 참석자 윤수근 회장, 권기택 사무국장, 허태훈 회원, 김용권 회원, 외부인력 10여명
- 04. 내 용 전국체육대회 자전거경기 노선 도로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 낙석방지용 철망 넝쿨제거 등



도로풀베기



낙석방지용 철망 넝쿨제거

NEWS

**경남중부지회 무궁화 농원 KBS1 동네한바퀴 방송 출연**

- 01. 일 시 2024년 10월 12일 방송
- 02. 장 소 무궁화카페 (경남 창원군 고암면 창밀로 346)
- 03. 내 용 무궁화 농원(이은철 회원, 박정미 홍보대사) KBS1 동네한바퀴 방송 출연



KBS1 동네한바퀴 무궁화카페  
2024년 10월 12일 방영  
매스컴이 소개한 아주 특별한 곳!!





융복합 규모의 경제로 확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다  
경기지회 「**세종식물원**」

글·사진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 경남중부지회 박정기



세종식물원 사무실, 강의실, 자재판매장

세종시에 가면, 국립 세종수목원이 있고, 사립 세종식물원이 있다. 수목원이 ‘garden’ 이라면, 식물원은 ‘botanic garden’ 이다. 식물원은 목본식물에 초본식물을 더하고 그 밖의 자연물까지 아우른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행정수도이다. 물론 청와대·국회·대법원은 서울에 버티고 있지만, 웬만한 중앙정부 부처들이 다 모여 있다. 그리고 인천 송도신도시와 더불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여유로운 시가지에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특히 넓은 수경관(水景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청주·대전·공주에 에둘러 싸인 세종시는 옛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묘목생산지이다. 조경수·과수·특용작물 재배포지가 많고 넓다. 우리나라 내륙의 묘목집산지는 충북 옥천과 경북 경산을 꼽는데 그 사이에 있는 세종시는 옴파로스(omphalos:배꼽,중심)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계획도시 늘 푸른 세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국보라면 세종시 시보(市寶)는 단연 세종식물원이다. 파종·삼목에서 유통까지, 세종식물원에는 1000여 종 정원식물이 감성적 미학을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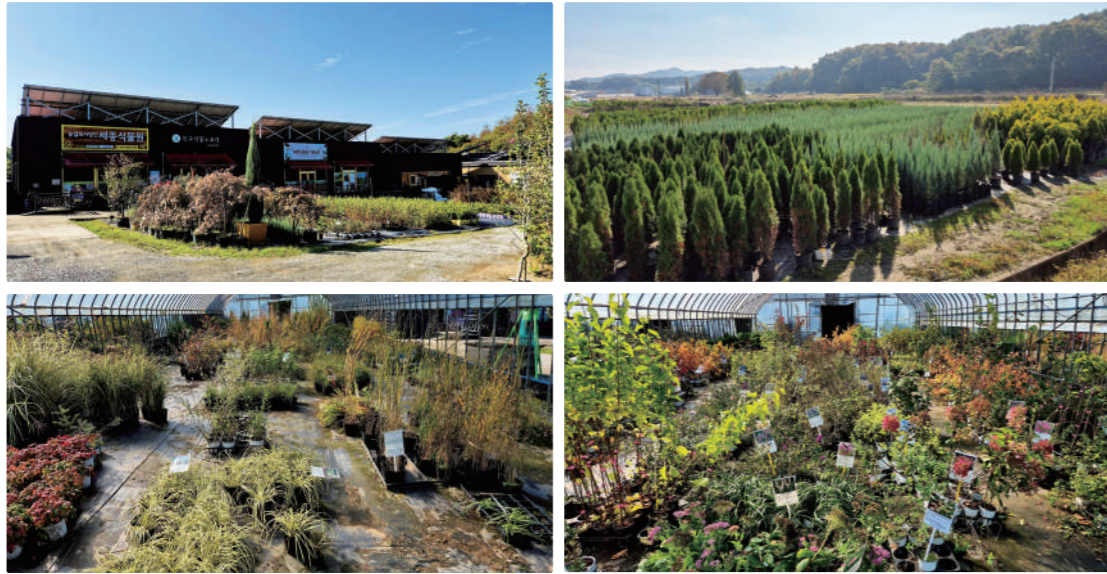
시설하우스 삽목장과 노지 포지에서 재배노하우를 설명하는 신중우 대표

**세종식물원**은 우리 협회 경기지회 회원사이다. 세종시 전의면 동교리에 있다. 전의면은 묘목 생산과 유통의 거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와 논산천안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 세종식물원은 거래량이 많고 유튜버 접속 수도 많은 핫플(hot place)이다. 조경수 생산자나 정원작가들 답사장소가 되고 조경학과 학생들 인사이트투어(Insight tour) 명소이다. 특히 컨테이너 재배 규모면에서, 또 조경수 온·오프라인 거래량 면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보배와 같은 회원사이다. '세종식물원'은 <농업회사법인 세종식물원> <세종식물원가든> <친구식물&조경> <세종가든식물센터> <천안정원식물원>을 아우르는 통합 명칭이다. 정원식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원·조경 조성부터 건설까지, 가드닝 강의부터 유튜버 방송까지, 정원·조경자재 개발부터 수입까지, 노지와 컨테이너 재배에서 전시장과 온라인 판매까지 융복합 경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생산과 유통 과정의 크고 작은 경험들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실험실습을 통하여 피드백 하는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확장성을 가진다. 1차산업에서 6차산업까지 규모의 경제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외 신품종 정보를 찾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며 소비자 요구에 따르고 때론 이끄는 구색 맞추기에 소홀함이 없다.

**신중우**대표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국에 이름난 묘목생산지에서 나고 자란 터라 고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심어 키웠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나이에 조경수 재배에 뛰어 들었다. 일찍이 지역의 4H 회장을 역임했고 농업경영인단체와 영농조합 요직을 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대사 활동을 했고 2009년 장관표창을 받았다. 신 대표는 조경학이나 원예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수 번식과 재배, 판매와 유통 강의를 하였고, 한국농수산대학에 현장교수로 출강할 정도도 이론과 실무에 밝다. 지금도 가드닝 전문 강사로, 정원식물 유튜버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정원 디자인은 물론 정원식물 마케팅에 일가견이 있고 수지타산을 맞추는 경영회계에 밝아 주먹구구식은 용납하지 않는다. 매년 100여종을 삼목할 정도로 시장 기호에 맞춘 재배수종 선택과 수요자 중심 품종구색으로 전시하여 단골손님이 많다.



세종식물원 본사 앞 정원식물 전시판매장. 품종 계통관리를 철저히 한다.



노지판매장(위)과 시설하우스 판매장(아래). 정원조성에 알맞은 소교목, 화관목, 그라스류, 숙근초화류, 전량 용기재배품이다. 모란은 국내 최다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택배전용 시설하우스(위)와 택배 포장작업 라인(아래)



조경수목에서 정원식물로, 노지재배 교목에서 컨테이너재배 관목으로, 3만평 노지재배 면적을 점차 줄여가면서 시설하우스 재배로 전환하였다. 신품종 위주의 화관목, 왜성종, 무늬종 200여 품종이 자라는 1200평 연동형 시설하우스 외부(위) 및 내부(아래)





정원과 상업공간을 목표시장으로 주부와 MZ세대에 초점을 맞춘  
 엽제품 위주의 최근 인기품종과 장래 인기품종의 삼목장과 육성장 내부(위)와  
 판매 단계에 다다른 수목은 적응을 위해 노지에 용기채로 전시하여 출하를 기다린다.(아래)



“시설하우스에서 30~50cm 키운 다음 노지에 정식하면 관리가 수월하다. 특히 잡초제거 품이 적게 든다. 노지재배 면적을 줄이고 면적당 입식 수량도 줄인다. 충분한 간격을 두고 북을 돌아 식재하면 굴취작업이 훨씬 수월하다. 숫자늘음에 수량을 늘리면 출하시기 다가 오면 제때 팔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조금해진다. 한 발 빠른 수종갱신과 재배 방법을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신중우 대표



서양측백류 지제부



정원작가와 소비자를 이끄는 신품종 입식 시설하우스, 초입종 적응 실험과 열세목 회복을 위한 시설하우스, 서재(書齋)와 상담실을 갖춘 가드닝 강의실



조경수 생산과 판매를 넘어 가드닝 기술을 전수하는 신중우 대표는 6차산업을 선도하는 베스트가드너이기도 하다. 사진은 <세종식물원가든> 전국에서 온 수강생들이 조성한 주제정원



3개 회사 5개 사업장 관리하는 신 대표와 아내, 딸이 역할을 분담한다

- ✓ **고정관념을 버려야** 틀에 박혀 고지식한 옛날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나무 농사도 유통도 어렵지 않다.
- ✓ **생산과 마케팅은 정확해야** 과학영농과 함께 생육조건과 관리방법, 특히 내한성(월동)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신뢰를 쌓는다.
- ✓ **플러스 알파** 나무·정원·조경 관련된 것을 접목한다. 신 대표는 정원석, 침경물, 오브제에 관심이 많고, 가드닝 전용 장갑을 개발 중이다.
- ✓ **깨어 있고 귀를 열고 연구해야** 신 대표는 다독(多讀)에다 연구자, 특허·상표등록 3개
- ✓ **인건비를 줄여야** 원가 개념에 충실하고, 관수설비를 최우선으로. 🌿



## 세종식물원 농업회사법인(주)

(30004) 세종시 전의면 김치선로 90

전화 : 044)868-9290 전송 : 044)862-9291

휴대전화 : 010-8900-9332(신중우)



회화나무꽃



회화나무 아까시나무잎

열한번째 이야기

# 회화나무



이노혁

조경 특급기술자

## 회화나무



천연기념물 제317호 1982.11.09지정

충남,당진,송산,삼월리

수령: 약500년 수고: 32m 흉고둘레: 5.94m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는 콩과의 고삼속(苦蔘屬)에 속하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숙근초인 고삼 과 목본인 회화나무 2종이 있다. 이 나무는 높이 30m 내외로 자라는 교목(큰키나무)이고 낙엽수(잎갈이나무)이며 활엽수(넓은잎나무) 이다. 우리선조들은 이 나무를 길상목(吉祥木)으로 중히 신봉해 왔다. 이 회화나무를 학자수(學者樹)나 선비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운이 좋아지고 큰선비가 나오거나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하며, 3주를 심으면 대길할 날만 생긴다고 믿고 있

었다. 또한 이 나무가 있으면 잡신이 접근을 못하고 좋은 기운을 가져 온다고 하며 이조시대까지는 서민들이 마음대로 심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 회화나무는 궁궐 사찰 사대부집 서당 서원(사설교육기관) 향교(지방교육기관) 등에 심을 수 있고 특별히 공이 많은 학자나 관리 에게는 임금이 상(賞) 으로 내리기도 했다 한다. 이조시대에는 회화나무 꽃을 문무백과에 급제한사람들에게는 임금님이 내리신 “어사화(御賜花)”로 쓰이기도 했다 하니 학자수 출세수 행복수라 아니 할 수가 없다. 회화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여겨온 신목이었다. 회화나무 꽃이 위에서부터 피면 그해에 풍년이오고 아래쪽에서부터 피면 흉년이 온다고 믿었다. 회화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인데 언제 누가 가져 왔는지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삼국시대 백제의 제2대 다루왕(多婁王) 때에 궁궐의 큰 회화나무가 스스로 말라죽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제23권 백제본기에 나오는데 이시기는 서기 48년에 해당함으로 적어도 2000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 회화나무가 길상목으로 믿어 온 것은 중국 주나라 때부터 라고 한다. 주나라 때에는 3괴9극(三槐九棘)이라 하여 조정의 외조(外朝=조정의 관리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는 곳) 에 회화나무 3주를 심고 그 좌우에 가시나무 9주를 심는 것인데 회화나무 앞에는

3 재상들이마주보고 앉아 일을 하고 그 좌우에는 대신들이 일을 보게 했다는 것인데 이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었다. 창덕궁외조(돈화문 앞)에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왕이 주관하는 회의가 1년에 몇 차례씩 있었다 한다.

이 회화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가 2000년이 넘는 것 같은데 야생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열매가 무거워 날아갈 수도 없고 특유의 냄새로 은행나무 종자와 같이 새들이나 짐승들이 잘 먹지 않아 종자가 멀리 가지 못하여 산야에 자연생이 없는 것 같다.

## 1. 회화나무의 다른 이름과유래

### 가. 다른 이름

우리나라에서는 회화목(懷花木) 회나무(懷나무) 회나무 괴화나무 괴목(槐木) 괴수(槐樹)란 이름이 있고,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선비나 큰 인물이 나온다하여 학자수 선비나무 출세수 행복수라 하였고, 양반들이 즐겨 심는다 하여 양반수, 풍년을 점치고, 정의를 판결하고 잡귀를 쫓고 기를 북돋아 준다하여 신목(神木)이라 하고,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하여 길상목(吉祥木)으로 널리 쓰였고, 몇 년 전에도 회화나무를 심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하여 필자에게 이 나무 묘목을 구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호야나무, 서양에서는 영어로 차이니스 스칼라트리(Chinese scholar tree)라 한다.

### 나. 이름의유래

회화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는 2000년이 넘는 것 같으며 중국에서 회화나무는 괴목(槐木) 괴화(槐花) 괴수(槐樹)라 하며 이 괴(槐)자는 우리나라 옥편에 괴화나무 회 또는 회화나무괴(중국발음으로 화이)로 되어 있어 회화나무라 한 것 같다. 이 나무가 언제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수 천년동안 재배 관리해 왔으므로 현재로서 향토화 된 수종이라 할 수 있다. 저절로 들어 온 것이 아님으로 귀화수종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2. 회화나무에 관련된 이야기 및 전설

회화나무는 수천 년 전부터 선인들이 길상목으로 여겨 오면서 많은 전설을 남기고 있다.

가. 옛날 중국에서는 재판관이 재판 송사를 들을 때 반드시 회화나무 가지를 들고 재판에 임했다고 한다. 회화나무는 진실을 가려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한다.

나. 회화나무가 나라의 길흉을 예고한다는 얘기도 중국의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후한의 광무제때 궁전 뜰 앞에 높이30m가 넘는 큰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라의 흥조라고 들 하였으나 황무제는 오히려 기뻐하며 이는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여 재물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 하였다. 그러자 회화나무는 하룻밤사이 본래 모습대로 바로 일어섰으며 이파리 하나 마르거나 상한 것이 없었다 한다.

다. 회화나무가 길상목으로 꼽히게 된 것은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라 한다. 주나라 때에 삼괴구극(三槐九棘)이라 하여 조정에 회화나무 3주를 심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3정승에 해당하는 3공을 마주보며 앉게 하였고 그 좌우에는 9주의 가시나무를 심어 조정의대신이 앉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창덕궁 외조에 수백년된 회화나무가 3주가 있었고 그 후 추가 식재하여 현재는 8주가 있는 것 같다.

라. 회화나무에는 자명괴(自鳴槐)라 하여 스스로 우는 꽃이 한 송이씩 있다는 얘기가 있다. 중국의 옛 책인 태을통독(太乙通讀)을 보면 까마귀가 이 자명괴를 따먹고 괴화의정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세계의 길흉을 미리 아는 능력을 얻어 흥한 일이 닥칠 것을 보고 까옥 까옥 짚는다고 하였다. 자명괴를 얻는 방법은 회화나무 꽃이 피기 시작 할 때부터 큰 망태기를 메고 다니면서 한 송이도 빠트리거나 땅에 떨어트리지 않고 모두 따서 모은다. 이것을 여러 그릇에 나누어 담고 밤을 지키면서 어느 그릇에서 은은한 쇠붙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는지 잘 듣고 그 소리가난 그릇을 또 여러 그릇으로 나누어 놓고 밤새워 가며 소리듣기를 반복하여 한 그릇에 괴화 한 송이가 담길 때까지 하여 마침내 소리나

는 괴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소리 내는 괴화를 먹으면 영롱 해져서 천상의 일과 인간세계의 일을 모두 아는 신통력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명괴는 어느 틈인가 땅에 떨어져 버리므로 그것을 얻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마. 경상북도 안동시에 회화나무 거목이 많은데 이것은 명 재상이 었던 맹사성이 심은 것이라 한다. 맹사성이 안동 부사로 부임하여 거리를 순찰하는데 여기 저기에서 여자의 슬픈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유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안동에는 오래전부터 젊은 과부가 많이 생겼는데 그 울음소리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곡성이라고 하였다. 풍수지리에 밝았던 부사 맹사성이 안동의 지세를 살펴보니 안동은 과부가 많이 날 형국이었다. 이 액운을 막기 위해 거리곳곳에 회화나무를 심게 하였더니 그 후로는 과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 3. 회화나무의 특성

#### 가. 조경적 특성

회화나무는 높이 30m 내외로 자라는 대교목이며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이고 소엽은 작지만 잎줄기 잎은 넓은 활엽수이다. 수형은 평정형(平頂形)이고 질감은 좋은 편이다. 중국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는 수천 년이 되었으나 자연번식이 잘 안되고 옛날에는 궁궐이나 사대부집 서원 서당 향교사찰 등에만 식재케 하고 조선시대 말까지 일반서민들은 식재하지 못하게 하여 널리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이 나무의 생태적 형태적 특성이 좋아 해방이 되고 5.16 이후 개발이 되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회화나무는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수목이라서 400~500년 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여러 곳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제315호(인천서구신현동, 수령약540년) \*. 제316호(부산괴정동, 수령 약600년 (1993년 해제)
- \*. 제317호(당진군삼월리, 수령약600년내외) \*. 제318호(경주시 안강면육통리, 수령500년내외)
- \*. 제319호(함안군영동리, 수령약540년내외) \*. 제472호(서울 창경궁 수령 약400년. 본래의

것은 1592년 임진왜란때 소실되어다시식재한것임)

#### 나. 형태 및 생태적 특성

잎은 호생하고 기수 우상복엽(양쪽깃털 복수형모양)이고 잎 개수는 7~17개이며 피침형인데 초보자가 언뜻 보아서 아까시나무 잎 모양으로 보면 된다. 다만 가지가 기늘고 녹색이며 가지가 줄기에 없는 것으로 확실히 구분 된다. 아까시나무는 꽃이 4~5월에 피지만 회화나무는 7~8월에 핀다.

회화나무는 내한성 내공해성 맹아력이 강하고, 이식이 잘되며 내음성은 중 정도이고 배수가 잘되는 습윤한 토지 사양토 내지는 사질양토를 좋아한다. 어릴 때의 생장은 빠른 편이나 성목이 되면 느려진다.

### 4. 회화나무와 유사종의 차이점

#### 가. 회화나무와 고삼

회화나무와 고삼(苦蔘)은 같은 고삼속 이므로 구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쉬운 편이다. 전자는 나무이고 고삼은 속근초 이며, 전자는 높이 자랄 수 있지만 후자는 지상부 줄기가 매년 죽는다. 같은 키 높이 일 때 회화나무 밑동의 굵기가 고삼의 1/3정도로 가늘다. 전자의 줄기 잎은 7~17개인데 후자의 잎은 15~40개 이다. 즉 잎줄기가 길고 잎 수가 훨씬 많다.

#### 나. 회화나무와 다름나무

가장 많이 닮았다는 회화나무와 다름나무는 잎모양과 숫자는 비슷하지만 후자의 잎이 조금 크고, 전자는 햇가지가 녹색인데 후자는 회녹색 이다. 전자의 열매는 염주형 인데 후자는 아까시나무 또는 박태기나무의 열매처럼 꼬투리형 이다. 회화나무는 산야에 없으나 다름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

### 다. 회화나무와 아까시나무

회화나무는 전국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아니므로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아까시나무 인줄 알고 있을 정도이다. 얼핏 보아서 두 나무가 많이 닮았지만 회화나무는 가시가 없고 아까시나무는 가시가 있다. 전자는 어린가지가 가늘고 녹색인데 후자는 어린가지가 보다 굵고 수피가 붉은 갈색이다.



고삼잎      회화나무잎      회화나무줄기      아까시나무잎, 줄기가시



고삼 숙근초      회화나무 열매      다름나무 열매      다름나무 가지

## 5. 회화나무 용도

가. 조경용: 가로수 공원수 녹음수 정원수 정자수 분재수 등으로 쓰인다.

\* 가로수: 회화나무는 중국 북경가로수 5대수종의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 수종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다 한다. 미국의 보스톤 일부 지역에서도 오래된 푸라타나스를 제거하고 회화나무로 교체하여 미관이 좋아 졌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인사동에 회화나무

가로수가 있었는데 일제 때에 제거당하고 5.16후 다시 일부 복원하여 40주 내외가 있고, 오래된 곳은 은평구 연신내에 250 여주(흉고40cm내외), 강남구압구정동에 약 500주(흉고 30cm내외), 서울 강남의 올림픽 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약 520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 같다.

\* 정원수 겸 녹음수로 서울 인사동 이율곡(이이)이 살던 집터에는 수령 약 450년 되는 회화나무가 있으며,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앞에도 약 450년 되는 회화나무가 있고, 유성룡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에는 오래된 회화나무가 집집마다 있을 정도라 하며, 전남 여수의 외곽지역에서 이순신장군이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집터에는 수령 400년이 넘는 회화나무가 있다고 한다.

\* 현재는 전국에 걸쳐 각종도로의 가로수, 공원수 녹지수 녹음수 등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와 대지가 넓은 주택을 제외하고 단독 주택에는 잘 식재하지 않는다.

### 나. 약용

옛날에는 현대와 같은 약품이 없었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회화나무는 여러 종류의 병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즉 혈압강하제 중풍 뇌일혈 손발마비 지혈 진정 소염 토혈 대하 치질 이질 피부병 노화지연 백모발생지연 등 무수히 많다. 옛날 식물학자들이 없을 때엔 한 의학을 한사람들이 주로 식물명을 만들었다.

### 다. 염료용

꽃과 열매를 사용하여 종이를 염색하여 괴황지(槐黃紙)를 만든다. 괴황지는 부적을 만드는 종이이다. 무학대사가 숨겨온 괴황지 만드는 비법은 기해일 경신일, 기해시 경신시에 귀신 쫓는 회화나무꽃 과 열매를 산중의 깨끗한 물에 9번 우려내서 노란 즙액을 내어 바르기를 또 한 9번 시행 하여 만드는데 3개월에 걸쳐서 완성 된다.

## 라. 기타

회화나무는 나무의 꽃이 귀한 7~8월에 2주 이상 연이어 오래 피기 때문에 꿀벌들에게는 좋은 밀원이 되고 있으며, 잎은 가축사료로 사용 할 수 있다.



## 6. 번식법

회화나무번식은 종자를 파종하여 얻는 실생묘법과 줄기삽목을 이용한 무성번식법이 있다. 대량번식을 위해서는 종자파종에 의한 것이 효율적이며 모수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삽목이나 접목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극소량이 필요하고 묘목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삽목이 더 유리하다 하겠다.

### 가. 종자채취 및 정선

종자 채취는 9월 하순에서 10월에 잘 결실된 것을 채취하여 음지쪽에서 말리어 종자를 수득하여 수선한다.

### 나. 종자 채종직후 파종

채종직후 파종코자 할 시는 11월 하순경에 파종 한 후 집 덮기나 차광 망덮기를 잘 해주어야 한다.

## 다. 종자보관 및 발아촉진법

다음해 봄에 파종코자 할 때는 종자를 습사저장 노천매장을 하거나 파종전에 온수침적 했다가 1~2일후에 파종 한다.

- \* 습사저장: 약간 습기가 있는 깨끗한 모래와 종자를 1:2비율로 혼합하여 통기가 되는 자루 등에 담아 음지창고에 보관 하였다가 봄에 파종 한다. 습기를 너무 많이 주어도 안되고, 파종시기가 아닐 때는 종자를 파헤쳐 보면 산소가 공급되어 발아촉진이 너무 빨라진다.
- \* 노천매장: 습사저장과 같은 방법으로 혼합한 종자를 양파 자루 같은데 담아 양지쪽 배수가 잘되는 땅에 지면 6cm 이하에 묻어주고 위에는 짚이나 차광망을 덮어 준다. 습기는 습사저장보다 약간 더 준다. 파종시기가 아닐 때는 저장종자를 파헤쳐 보지 말아야 한다. 산소가 공급되면 발아가 빨라진다.
- \* 파종전 온수침적: 정선된 종자를 섭씨85~90도 온수(온수량은 종자와1:1)에 침적 하였다가 30~40분 후에 건져서 물기를 빼고 즉시 사용하거나 1~2일 후 사용한다.

## 라. 파종작업

- 1) 상 만들기: 상면에 기비와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상면 고르기를 한다, 상면폭은90~100cm로 하며 길이는 파종 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20m 이내로 한다. 상면높이는 습한포지는 7cm, 보통5cm,, 건조포지3cm 정도로 한다. 이랑 넓이는 40cm내외 로 한다. 이랑 폭을 30cm로 하면 파종 상 제조작업 시 작업원의 엉덩이에 부딪쳐 묘목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2) 종자 뿌리고 덮기: 작업의 편의상 줄뿌림(조파) 을 하는 것이 좋다. 상면1m 길이에 골 10개를 만들고 1골에 50개(1m<sup>2</sup>에500) 정도를 고르게 뿌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3cm두께로 덮고 판자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들겨 준다, 씨뿌리기 작업이 끝나면 짚이나 차광 망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파종 후30~40일 정도면 발아가 되는데 매일 파종상을 관찰하여 발아가 5%정도 되면 오후에 관수를 하고 다음날 10시 이후에 걷어 주는 것이 좋다.(m<sup>2</sup>당 500입\*효율48%,약250분/m<sup>2</sup>정도발아. 1리터당 입수-약5,500)

3) 제초및숙음작업: 제초작업은 약20일 내외 간격으로 하되 주간일기예보를 잘 듣고 파종 상은 비온 다음에 해야 잡초뿌리가 잘 뽑히므로 제초작업 후 2주밖에 안 되었어도 비가 오면 바로 상면의 풀을 뽑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초작업은 풀을 자르는것이 아니고 뽑는 것 이므로 효율적이다. 고랑의 풀은 20일을 전후하여 햇볕이 잘날 때 선호미(반달호미) 로 굽어서 제거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는 상면 제초작업을 할 때 빈약한 묘, 겹친 묘 등을 조금씩 2~3회 슈아내어 7월 중순경에는 1m<sup>2</sup>당 80본 내외를 잔존시킨다. 발아가 적기에 잘되고 관리를 잘하면 1년생이 50~80cm자라고, 발아가 늦거나 관리가 잘 안되면 20~30cm 밖에 안자란다.

4) 비료주기과관수: 비료주기와 관수는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 기본적인 것만 설명한다.토지 비옥도가 보통이라면 복합비료를 사용 하고 척박한곳이라면 복합비료에 요소를 10% 정도 더 섞어서 사용함이 좋고, 비료는 이슬이 없을 때 주어야하고 비료를 뿌리는 뒤를 따라 부드러운 빗자루 등으로 비료 털어주기를 하여야한다. 비료주기는 5월 하순 부터 7월 20 일 사이에 소량씩 2~3회 실시함이 좋다. 7월 20일이후에는 비료주기를 하지 않는다.

5) 굴취가식: 중부이북지방에서는 묘목 초단부의 동해가 우려됨으로 서리가 와서 잎의 단 풍이 80%이상 들었을 때 굴취 하여 10~15분 썩 다발로 묶어 초단부가 남쪽을 향하게(남 부지방에서는 초단부가 북쪽을 향하게) 열 가식 을 하였다가 봄철 수액이 동전에 1~2m 간격으로 이식 하여야 한다. 수목을 출하 할 때 까지 육성 하려면 1.5~2m로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이식 하려면 1m간격 식재가 좋을 것이다.

## 7. 병 해충 방제

회화나무에는 본래 병충해가 많지 않다. 더욱이 양묘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병해로는 녹병과 탄저병 정도이고, 충해로는 진딧물 깍지벌레(개각충) 꽃매미인데 최근에는 좋은 약제도 많이 나오고 병 해충발생 사진만 찍어 농약 상에 가면 친절히 잘 설명 해주고 있다. 🌿



신현동 회화나무  
천연기념물 제315호, 인천서구 신현동  
높이 약 22m, 둘레 5.59m





“

조경수 유지관리

# 친공성 해충의 생태와 방제

- 하늘소 -

”



정규중  
나무의사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 1. 하늘소의 종류 및 생태

하늘소(Cerambycidae)는 딱정벌레목의 한 과를 차지하고 있는 긴 더듬이가 특징인 곤충으로 한국에는 장수하늘소를 비롯하여 3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곤충 중에서도 매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초식곤충이기에 생태계에서 위치가 남다르다.

새들의 생활사를 보자, 4월부터 6월동안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는다. 이들이 이 시기에 알을 낳아야 하는 이유도 있다. 바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기에 새끼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가장 좋은 단백질 먹이는 무엇일까? 바로 애벌레이다. 그 중 단연코 부피가 큰 하늘소 유충이 아닌가 한다. 새들이 시끄럽게 지저귀는 것은 먹이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작은 구멍 사이로 커다란 애벌레가 잡혀 먹이가 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새들의 먹이로도 손색없는 자연계에서 귀한 음식이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늘소의 애벌레는 로마 시대에는 꽤 별미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며, 곤충학자 파브르 역시 하늘소의 애벌레를 꼬치구이로 만들어 이웃집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 외에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도 대표저서 슬픈 열대에서 남미 일대 부족들을 조사하는 와중에 원주민들로부터 애벌레를 대접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하늘소는 생태계에 부족한 단백질을 제공하여 주기도 하지만, 곤충 중에서도 덩치가 커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곤충에 포함된다. 하늘소는 턱이 매우 발달하였고 애벌레 기간동안 목질부 안에서 생활하며 나무의 물과 양분통로를 교란하고 살아있는 세포인 형성층을 가해한다. 이러한 곤충의 개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숲은 망가질 수 밖에 없다.

### 1.1. 알락하늘소류

알락하늘소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와 같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성충은 만지는데 혐오감이 없기에 자연체험용 교보재로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최근 대발생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를 주는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노랑알락하늘소 3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알락하늘소는 활엽수의 기주범위가 넓어 피해가 크며 또한 침엽수 중에서는 삼나무를 가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풍나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리알락하늘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원도에 국한되어 있는 종이었으나, 유전자가 다른 유입 개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유리알락하늘소와 중국에서 유입된 유리알락하늘소가 교배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피해를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랑알락하늘소는 인도와 라오스, 대만, 태국, 베트남, 중국 남부 등에서 유입되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아열대 곤충의 유입과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알락하늘소의 피해 양상은 우선 산란을 위해 줄기나 가지에 강한 턱으로 상처를 내고 산란하며, 산란된 알은 부화하여 목질부내를 파고들어 물과 양분의 공급을 차단하며 이로 인해 곰팡이균의 침입을 유인하게 된다. 또한 우화한 성충은 탈출공을 만들어 2차적 곰팡이의 침입을 유인하게 된다. 탈출한 성충은 1~2년생 가지의 수피를 섭식함으로써 가지의 고사를 발생시킨다.



< 그림 1 > 알락하늘소류의 종류



성충의 가지 식흔      유충의 목질부 식흔      성충의 탈출공  
< 그림 2 > 알락하늘소류의 피해 흔적

**가. 알락하늘소 *Anoplophora malasiaca***

알락하늘소는 연 1회 발생하며, 노숙유충으로 월동한다. 5월 초순에 목질부내에서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기간은 20~30일이다. 성충 우화시기는 6월 중순~7월 중순으로 우화한 성충은 수관으로 올라가 수피나 잎을 후식하며 생활하다 강한 턱으로 수피에 상처를 내고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 후에 유충이 줄기 아래쪽에서 목질 속으로 파먹어 들어가며 톱밥 같은 부스러기(목설)를 밖으로 배출한다. 번데기가 될 시기가 되면 아래쪽 지체부로 이동하여 줄기의 형성층을 식해하여 피해가 크다. 수세가 쇠약해져 나무가 고사하고 바람에 의해 줄기가 부러지기도 한다. 성충의 후식 피해는 크지 않으나 1~2년생 잔가지의 수피를 환상으로 갉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가지가 말라죽기도 한다.



알락하늘소 탈출공      알락하늘소 산란흔  
< 그림 3 > 알락하늘소 피해

**나.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유리알락하늘소는 알락하늘소와 생태적 특성이 비슷하다. 그러나, 알락하늘소와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몸 크기와 무늬, 생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등딱지 날개 부분의 돌기로 판단할 수 있는데 돌기가 있으면 알락하늘소이고 돌기 없이 매끈하면 유리알락하늘소이다.

유리알락하늘소는 느릅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단풍나무 등을 기주식물로 삼으며 중국과 한국이 원산지이다. 한국에는 북한과 강원도 지역에 국한되어 분포하던 종이었지만, 2020년에 중국 쪽에서 들어온 화물에 붙어 유입된 개체들이 인천과 부산 등지의 항구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에 분포하던 종은 맞으나 중국 유입 개체들은 국내 서식하는 개체와 유전자 풀이 다르다. 이는 곧 유전자 교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국내에서 일부만 서식하던 개체군이 다른 환경에 적응한 개체군과 만나 교잡종이 탄생하면 수목 피해 문제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알락하늘소 성충

유리알락하늘소 산란흔

<그림 4> 유리알락하늘소 피해

**다. 노랑알락하늘소 *Anoplophora horsfieldi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남부연안지역과 제주도지역의 아열대성 곤충의 발생 및 서식이 가능케 하였다. 노랑알락하늘소는 인도와 라오스, 대만, 태국, 베트남, 중국 남부 등에 서식

하는 아열대성 곤충이다. 다른 곤충과 달리 노란색을 띠는 대형종으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정착 초기에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외래해충 ‘노랑알락하늘소’가 확산되면서 제주지역의 대표 수종인 팽나무를 기주로 하기에 그 피해가 상당하다. 노랑알락하늘소는 제주도의 천 년 된 팽나무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으며, 나무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로 인해 팽나무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제주도의 고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랑알락하늘소는 토종 알락하늘소보다 1.5배 더 큰 게 특징으로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성충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랑알락하늘소는 제주시 용연계곡부터 한천 지류를 따라 옛 해태 동산이라 일컬어지는 제주시 연동 도령 마루까지 3km 구간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노랑알락하늘소

노랑알락하늘소의 식흔

<그림 5> 노랑알락하늘소의 피해

**1.2. 빛나무사향하늘소 *Aromia bungii***

빛나무사향하늘소의 속명인 Aromia는 라틴어로 향기로운 냄새를 의미하는 Aro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향기는 생식 및 방어목적으로 분비한다. 빛나무사향하늘소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는 중국, 몽고, 베트남,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그러나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

서 유입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일본에 유입되어 주요수종인 벚나무에 심각한 피해는 주고 있다. 벚나무 사향하늘소의 기주식물은 벚나무류,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버드나무류 등이며 특히, 벚나무속에 피해가 많다. 생태적 특성을 보면 2년에 1회 발생하며 유충은 8월께 알에서 부화하고 수피 아래 형성층 부위만 가해하다 월동을 하기 위해 변재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려운 해충이다. 성충은 생존 기간이 50일 정도이며 약 3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10일 후 부화하여 다시 목질부를 갉아 먹으며 갱도를 형성한다.



벚나무사향하늘소 성충

벚나무사향하늘소의 식흔(목설)

<그림 6> 벚나무사향하늘소의 피해

### 1.3. 작은별긴하늘소(포플러하늘소) *Compsidia populea*

작은별긴하늘소는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분포하며 날개에는 황금색 반점이 4~5쌍씩 있어 아름다운 별을 연상케 한다. 연 1회 발생하며 유충으로 월동한다. 우화시기는 4월 하순~5월 하순이며, 우화최성기는 5월 하순에 전체의 약 80% 이상이 우화한다.

우화한 성충은 약 1주일 동안 줄기의 수피를 갉아 먹고 생활하다가 수피를 U자형으로 물어뜯고 1개씩 산란하며 산란수는 약 30개이고 알기간은 9~16일이다. 부화한 유충은 수피 밑에서 줄기의 속으로 파먹어 들어가 생활하는데, 몸집이 작은 포플러하늘소는 얇은 가지

에서 생활하기에 가지내에서 성장함에 따라 가지의 일부가 불룩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9월 하순경부터 갱도 끝에 번데기집을 짓고 유충으로 월동하여 이듬해 3월 하순~5월 중순 사이에 번데기가 된다.



작은별긴하늘소의 성충

작은별긴하늘소의 유충

<그림 7> 작은별긴하늘소의 피해

### 1.4. 뽕나무하늘소 *Apriona germari*

뽕나무하늘소는 장소하늘소처럼 눈에 띄게 몸집이 크고 갈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 장수하늘소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수하늘소는 가슴에 4개의 노란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뽕나무하늘소는 7~8월에 성충이 되어 1~2년생 가지를 물어뜯어 상처를 내고 산란한다. 어린 유충으로 겨울을 나며, 2년에 1회 발생한다. 산란 당 년에는 산란부위 근처에서 아주 작은 유충으로 월동하고 2년째는 줄기 속에서 큰 유충으로 월동한다.

성충이 가지에 주둥이로 상처를 내고 산란하며, 부화한 유충은 주간이나 줄기 속으로 뚫고 들어가 중심부에서 아래를 향해 터널을 만들어 가해하고 약 10~30cm 간격으로 겉에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가해한 나무 조각과 톱을 배출하며, 성충은 기주식물의 신초나 과실을 가해하여 피해를 준다.



뽕나무하늘소 성충 식흔



뽕나무하늘소 유충의 피해

<그림 8> 뽕나무하늘소의 피해

### 1.5. 참나무하늘소 *Batocera lineolata*

참나무하늘소는 남해안의 활엽수림에 주로 피해를 준다. 성충은 5월 하순부터 출현하여 7월 중순까지 활동한다. 참나무, 오리나무 등의 얇은 가지를 가해하는데 낮에는 주로 나무의 높은 부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야행성임으로 밤에 불빛을 보고 날아오기도 한다.

암컷은 살아있는 나무의 굵은 줄기에 산란하며 유충은 살아있는 나무의 목질부 안에서 생활하는데 기생한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다. 유충 상태로 동면하는 개체도 있고 성충 상태로 동면하는 개체도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하늘소 중에서 장수하늘소 다음으로 몸집이 크다. 거대한 유충이 살아 있는 참나무, 오리나무 등을 가해해 고사시키는 해충이다.



참나무하늘소의 산란흔



참나무하늘소 유충의 목설

<그림 9> 참나무하늘소의 피해



뽕나무하늘소  
*Apriona germari*



참나무하늘소  
*Batocera lineolata*

<그림 10> 뽕나무하늘소의와 참나무하늘소의 형태 비교

## 1.6. 향나무하늘소 *Semanotus bifasciatus*

1년에 1회 발생하며 피해목 목질부의 번데기방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월동성충은 3~4월에 탈출공을 뚫고 탈출하여 교미한 뒤 수피를 물어뜯어 그 속에 알을 낳는데 1마디당 28개 정도이다.

유충은 형성충을 불규칙하고 편평하게 먹어 들어가면서 갱도에 배설물을 채워 놓는다. 9월에 노숙 유충이 되면 목질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 용실을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유충이 수피 밑의 형성충을 갉아 먹어 나무를 급속히 고사시킨다. 쇠약한 나무에 피해를 주지만 대발생하면 건전한 나무에도 피해를 주며,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갱도내에 쌓아두어 피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해충이다.



향나무하늘소 암컷과 수컷

향나무하늘소 유충의 피해

<그림 11> 향나무하늘소의 형태 및 피해

## 2. 하늘소의 방제방법

하늘소류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은 알 상태에서는 산란부위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유충단계에서는 봄철에 하늘소의 피해상황을 자주 살펴서 줄기 속에서 가해하는 애벌레를 철사나 유기인계 살충제를 사용하여 죽여야 한다. 성충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면에서 가까운 줄기부위에 주로 산란하므로 피해가 심한 곳에 수성페인트를 주간부에 도포하거나 줄기 밑부분에 비닐감기를 하면 산란기피 효과가 있다.

또한, 유충이 목설(톱밥과 같은 가루)을 배출하는 구멍 속에 훈증 효과가 있는 방제제(겨자오일 등)를 주입한 후 구멍을 점성이 있는 유토(油土)로 막아 유충을 사멸시키는 방식도 있다.

유충 방제를 위해서 나무의 줄기에 약제를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감싸 훈증하는 처리 방식도 있으나,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방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제 효과의 편차가 있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비닐 내부에서 버섯이 자라는 등 단점이 있다.

또한 애벌레시기에는 목질부내에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 어렵지만 성충이 우화하여 후식하는 시기부터 우화최성기인에 페니트로티온 유제(50%)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10%)를 1주일 간격으로 2~3회 수관에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단 산란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하늘소의 침입공으로 천적인 기생봉류, 맵시벌류, 기생파리류 등이 침입하여 하늘소 유충의 몸속에 알을 낳게 하거나 딱따구리류 및 해충을 잡아먹는 각종 새를 보호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피해목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바람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넘어져 건물이나 물건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이듬해에 보식하는 것이 좋다. 🌳



#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속 2편  
Genus *Hibiscus*



김종근

글/사진: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www.plusgarden.com

이번 호부터는 무궁화속(*Hibiscus*) 식물 중 국내 정원용 소재로 적용할 만한 가치가 높은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품종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재배 품종명에 있어서 영문표기의 경우 국가표준 식물목록(KPND)과 한국무궁화연구회 등과의 차이가 다수 발생하여 상호 일치된 부분은 가급적 적용하되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동일 단어 표기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품종명의 기준인 육성된 국가의 언어를 기준으로 가장 발음에 적합하면서 향후 비슷한 이름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영문 스펠링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예: 단심(Tanshim→Dansim), 배달(Paedal→Baedal), 자선(Chason→Jaseon) 등].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올바르고 일관성 있는 명칭 사용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향후 만약 ‘자손’ or ‘차손’이라는 명칭의 무궁화 품종이 새롭게 육성되어 영문명을 표기하려 할 때 앞서 언급한 기준 ‘자선(Chason)’이라는 품종과 영문명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둔다. 한 종류의 식물에는 지구상 하나의 학명만 정명으로 인

정되는 부분에 있어 한글명 학명은 다르면서 영문 품종명이 동일하다면 외국에서 유통 및 이용할 때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학계 및 기관에서 통일안이 마련된다면 함께 그 기준안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영문 품종명 중 간혹 참고문헌별 영문명 표기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무궁화 '애드미럴 듀이' *H. syriacus* 'Admiral Dewey'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하얀색 반겹꽃이 매력적인 배달계 품종으로 1900년경 미국에서 백색 홑꽃인 무궁화 '토투스 알부스'(*H. syriacus* 'Totus Albus')를 개량하여 육성하였으며 국내



*H. syriacus* 'Admiral Dewey'  
무궁화 애드미럴 듀이'

에는 영국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꽃은 수술이 변해 생긴 속꽃잎이 발달하여 하얀색 반 겹꽃으로 피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암술과 수술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꽃잎 수는 약 31장, 꽃의 지름은 약 7cm 정도로 중소형 크기이며 꽃봉오리 상태일 때는 연녹색을 띠다가 점점 하얀색으로 꽃이 핀다. 잎의 길이는 약 7-8cm, 폭은 약 4cm로 중간 크기이며 잎자루는 약 1.5cm에 달한다. 잎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이고 잎 끝부분은 뾰족하며 잎 밑부분은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심하게 물결친다.

 **무궁화 '아카하나가사'(적화랍;赤花笠)**  
*H. syriacus 'Akahanagasa'*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자줏빛 빨간색 겹꽃으로 피는 홍단심계 품종으로 일본



*H. syriacus 'Akahanagasa'*  
무궁화'아카하나가사(적화랍;赤花笠)

긴키(近畿) 지역의 무궁화 실생(實生, seedling)에서 선발되었다. 꽃 수술의 대부분은 속꽃잎으로 변하며 바깥쪽 기본 꽃잎은 뚜렷하게 크고 활짝 핀다. 꽃잎 수는 약 31장, 꽃 지름은 약 7cm 정도로 중소형 크기이며, 꽃잎 한쪽에 진한 빨간색을 띠는 아사달 무늬가 나타난다. 꽃 중앙의 단심은 진한 붉은색이지만 속꽃잎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으며,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다소 약한 편이다. 잎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3-4cm로 중간 크기 정도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약 0.4cm 정도이다. 잎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이고 잎몸이 약간 깊게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게 물결친다. 가지는 굵은 편이며 천천히 자란다.

 **무궁화 '아카히토에'(적일중;赤一重)**  
*H. syriacus 'Akahitoe'*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빨간빛 진분홍색 홑꽃으로 피는 홍단심계 품종으로 일본의 하카타(博多)가 선발하였으며 1990년대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꽃의 지름은 약 8cm 정도로 중간 크기이며 꽃잎의 끝부분이 갈라져 있다. 꽃은 활짝 벌어지지 않고 넓은 컵 모양처럼 피며 꽃잎이 서로 약간 겹쳐진다. 꽃 중앙의 단심은 크고 진한 붉은색을 띠며 꽃잎맥



*H. syriacus 'Akahitoe'*  
무궁화'아카히토에(적일중;赤一重)

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짧게 발달한다. 잎은 작은 편으로 길이는 약 5cm, 폭은 약 3.5cm, 잎자루 길이는 약 0.7cm에 달한다. 넓은 타원 모양의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폭이 다소 넓고 끝이 둔한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갈라지고 가장자리는 약하게 물결친다. 생육형은 하늘을 향해 자라는 좁은 직립형으로 성장력은 왕성하다.

 **무궁화 '아메리카 이레네 스콧'(슈거팁)**  
*H. syriacus 'America Irene Scott' (Sugar Tip)*

수고는 약 2.4-3.6m, 폭은 약 1.2-1.8m까지 자라는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연분홍색으로 피는 겹꽃이 매력적이며 꽃의 중앙부에는 붉은색 단심이 발달한다. 특히 잎 가장자리에 크림빛 흰색의 무늬가 불규칙하게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무궁화 꽃을 볼 수 없



*H. syriacus 'America Irene Scott'*  
(Sugar Tip)  
무궁화'아메리카이레네스콧(슈거팁)

는 봄과 늦가을철에도 무늬 잎을 활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무늬 잎의 특징을 활용하여 무늬정원이나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정원에 식재해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영하 29도까지 견딜 정도로 추위에도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 식재해도 생육이 가능하다.

 **무궁화 '애플리시무스'**  
*H. syriacus 'Amplissimus'*



*H. syriacus* 'Amplissimus'  
무궁화 'AMPLISSIMUS'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자줏빛 분홍색 겹꽃이 매력적이다. 꽃의 암술과 수술은 완전히 퇴화되어 속꽃잎으로 변하며, 속꽃잎과 기본 꽃잎이 모두 짧고 뾰족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꽃의 지름은 약 7cm 정도로 중소형 크기이며 꽃 색깔은 처음에는 짙은 자줏빛 분홍색을 띠다가 점점 짙은 자주색으로 변한다. 무궁화 '폼폰 루즈'(H. syriacus 'Pompon Rouge')와도 비슷하지만 속꽃잎의 수가 다소 적게 발달하고 자줏빛이 더 연하여 구별이 가능하다. 잎은 중간 크기로 잎 끝부분은 점점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약간 둥글고 무디다. 잎몸은 아주 깊게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예리하게 갈라진다.

 **무궁화 '안동'**  
*H. syriacus* 'Andong' (Antong)




*H. syriacus* 'Andong'  
무궁화 '안동'



무궁화 '안동'

수고가 약 50cm에 달할 정도로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백단심계 품종으로 경북 안동시 예안향교에 있는 약 100년생 재래종 무궁화 가지를 접붙이기하여 얻은 접목묘에서 1999년 선발하였다. 꽃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흰색 꽃잎에 붉은 단심이 발달하는 홑꽃

으로 핀다. 꽃잎은 완전히 퍼져 평평하게 피며 꽃잎 폭은 좁고 서로 겹치지 않고 벌어진다. 꽃의 지름은 약 6cm 정도로 작은 편이며 꽃잎 가장자리는 뒤로 말린다.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 상태에서 암술머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점이 특징이다. 꽃 중앙의 단심은 크게 발달하며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지는 단심선은 짧게 발달한다. 잎의 길이는 약 5-6cm, 폭은 약 2-3cm로 중소형 크기이며 잎자루 길이는 약 0.6cm 정도이다. 잎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이며 작고 두껍다. 잎 끝부분은 길쭉하게 뾰족해지지만 둔하고 잎 밑부분은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종자는 맺히지 않으며 번식은 꺾꽂이나 접붙이기로 한다. 작게 자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화분이나 분재용으로 심으면 정원에 멋진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무궁화 '아랑'**  
*H. syriacus* 'Arang'

1979년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경남 밀양시에 자라는 재래종 무궁화로부터 선발한 홍단심계 품종이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70일 동안 피는 자줏빛 연분홍색의 반겹꽃이 매력적이다. 품종명 '아랑'은 정절의 여인 아랑의



*H. syriacus* 'Arang'  
무궁화 '아랑'

전설이 있는 밀양에서 선발되었다 하여 붙여졌다. 꽃 수술의 일부분은 작은 속꽃잎으로 변하며 기본 꽃잎은 뚜렷하게 크고 활짝 핀다. 꽃잎 수는 31개 정도이며 꽃이 활짝 피면 꽃잎 사이의 간격이 약간 벌어진다. 잎은 중간 크기로 길이는 약 5cm, 폭은 약 3cm이고 약간 길쭉한 모양이며 잎자루 길이는 약 1.2cm 정도이다.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갈라져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얇게 발달한다. 생육형은 하늘을 향해 좁게 직립하며 가지는 높고 곁가지가 많이 발생한다.

 **무궁화 '아덴스'(첫사랑)**  
*H. syriacus* 'Ardens'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연자줏빛 분홍색 겹꽃이 매력적인 홍단심계 품종



*H. syriacus* 'Ardens'  
무궁화 '아덴스(첫사랑)'



무궁화 '아덴스(첫사랑)'

으로 1873년경 영국에서 육성되어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무궁화 '첫사랑'으로 명명한 바 있다. 꽃은 수술이 모두 제법 큰 속꽃잎으로 변하여 꽃잎으로 자리 잡지만 기본 꽃잎이 더 크고 뚜렷

하게 발달한다. 꽃잎 수는 약 35장 정도이며 꽃의 지름은 약 7cm 정도로 중소형 크기이다. 꽃 중앙에 발달하는 붉은 단심은 작은 편이며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약하게 발달한다. 잎 길이는 약 7cm, 폭은 약 4cm, 잎자루 길이는 약 1cm 정도이다. 잎은 약간 길쭉한 달걀 모양이고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 지지만 끝이 둔한 편이며 잎 밑부분은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갈라져 있으며 가장자리는 다소 약하게 물결친다. 가지는 다소 넓게 퍼지며 매우 뻣뻣하게 자란다.

 **무궁화 '아사달'**  
*H. syriacus* 'Asadal'

키가 약 70cm 정도로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아사달계 품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경남 지역 재래종 무궁화의 자연방임수분(Open Pollination) 종자를 파종하여 얻은 후대(後代) 실생(實生, Seedling)에서 1972년 선발하였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흰색 바탕에 붉은빛 분홍색 무늬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의 지름은 약 7cm 정도로 중소형 크기이다. 꽃봉오리일 때는 진한 자주색이었다가 꽃이 점점 피면서 붉은색 무늬가 발달한다. 꽃이 피는 초기에는 작은 속꽃잎이 약간 발생하기도 한다. 꽃 중앙에 발달하는 단심은 크고 진하



*H. syriacus* 'Asadal'  
무궁화 '아사달'



무궁화 '아사달'

며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길게 발달한다. 잎의 길이는 약 4cm, 폭은 약 2.5cm로 작은 편이고 잎자루 길이는 약 0.7cm이다. 잎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이고 잎 끝부분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의 물결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무궁화 '아사녀'**  
*H. syriacus* 'Asanyeo'('Asanyo')



*H. syriacus* 'Asanyeo'('Asanyo')  
무궁화 '아사녀'



무궁화 '아사녀'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피는 자주색 반겹꽃이 매력적인 홍단심계 품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재래종 무궁화로부터 1983년에 선발하였다. 품종명은 석가탑을 창건한 아사달의 부인인 아사녀를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꽃 수술의 대부분은 작은 속꽃잎으로 변하며 기본 꽃잎은 뚜렷하게 크고 활짝 핀다. 꽃잎 수는 31장 정도이며 꽃 지름은 약 9cm 정도로 중형 크기이다. 꽃 중앙의 단심은 작고 뚜렷하지 않으며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지는 단심선은 길게 발달하지 않는다. 잎 길이는 약 7.5cm, 폭은 약 4cm로 중간 크기이며 잎자루 길이는 약 0.7cm 정도이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잎 끝부분은 가늘고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끝이 둔하고 폭이 넓은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며 가장자리의 물결 정도는 없거나 얇으며 톱니가 많이 발달한다. 생육형은 좁게 직립하며 어린가지는 적갈색을 띤다.

**무궁화 '아우레아' (초설)**  
*H. syriacus 'Aurea'*



*H. syriacus 'Aurea'*  
무궁화 '아우레아(초설)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분홍색 홑꽃이 피는 홍단심계 품종으로 봄철 새로 나오는 잎이 황금빛 연노란색을 띠다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점점 녹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홍색을 띠는 꽃잎 중심부에는 붉은색 단심이 발달한다. 봄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재로 무궁화 꽃이 피지 않는 봄철에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품종이다.

**무궁화 '배달'**  
*H. syriacus 'Baedal' ('Paedal')*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하얀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인 배달계 품종으로 1972년 서울대학교에서 경남 거제시에 자라는 재래종 무궁화로부터 선발하였다. 꽃잎은 완전히 활짝 퍼져 평평하게 벌어지며 서로 약간 겹쳐진다. 꽃의 지름은 14cm 정도로 큰 편이며



*H. syriacus 'Baedal' ('Paedal')*  
무궁화 '배달'



무궁화 '배달'

꽃잎 끝부분은 안쪽으로 살짝 말리는 듯하다. 꽃봉오리는 위쪽이 노란색을 띤 연녹색이었다가 점점 하얀색으로 피며 간혹 크고 작은 속꽃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잎 길이는 약 6cm, 폭은 약 4cm로 중간 크기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0.6cm 정도이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폭이 넓은 U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는 약하게 물결친다. 전체적으로 생장이 왕성하며 내한성이 강한 편이다.

**무궁화 '백단심'**  
*H. syriacus 'Baekdansim' ('Paektanshim')*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하얀색 꽃



*H. syriacus 'Baekdansim' ('Paektanshim')*  
무궁화 '백단심'



무궁화 '백단심'

잎 중앙에 붉은 단심이 발달하는 홑꽃이 매력적인 백단심계 품종이다. 꽃잎 중앙에 발달하는 단심은 크고 진하며 방사상으로 퍼지는 단심선은 길게 발달한다. 꽃잎은 서로 겹쳐지며 가장자리는 잘게 갈라진다. 백단심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무궁화원, 여름정원, 생울타리원, 곤충정원 등의 다양한 테마에 잘 어울리는 품종이다.

**무궁화 '백설'**  
*H. syriacus* 'Baekseol' ('Paeksol')



*H. syriacus* 'Baekseol'  
 무궁화 '백설'



무궁화 '백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하얀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인 배달계 품종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무궁화 '화랑'의 1년생 꺾꽂이묘에 방사선을 처리하여 선발하였다. 꽃잎

은 완전히 퍼져 평평하게 벌어져 피며 서로 약간 겹쳐진다. 꽃의 지름은 11-12cm 정도로 중간 크기이며 꽃잎은 흰색으로 속꽃잎이 불규칙하게 약간 발생한다. 잎 길이는 약 7cm, 폭은 약 5cm로 중간 크기이며 잎자루 길이는 1.3cm 정도이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이고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지지만 끝이 둔하며 잎 밑부분은 폭이 넓은 U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갈라지고 가장자리는 심하게 물결친다.

**무궁화 '배수체'**  
*H. syriacus* 'Baesuche'



*H. syriacus* 'Baesuche'  
 무궁화 '배수체'

여름부터 가을까지 진홍색 꽃잎 중앙에 붉은 단심이 발달하는 홑꽃이 매력적인 홍단심계 품종이다. 꽃잎 중앙에 발달하는 단심은 크고 진하며 방사상으로 퍼지는 단심선은 길게 발달한다. 꽃잎은 서로 겹쳐지며 가장자리는

잘게 갈라진다. 붉은색을 테마로 하는 정원이나 무궁화원, 여름정원, 생울타리원, 곤충정원 등의 다양한 테마에 잘 어울리는 품종이다.

**무궁화 '배너'**  
*H. syriacus* 'Banner'



*H. syriacus* 'Banner'  
 무궁화 '배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70일 동안 하얀색으로 피는 겹꽃이 매력적인 백단심계 품종으로 1958년 미국에서 선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꽃 수술은 모두 꽃잎으로 퇴화하였으며 기본 꽃잎이 속꽃잎보다 작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는다. 꽃의 지름은 6.5cm 정도로 작은 편이며 꽃잎은 흰색이지만 간혹 연분홍색을 띠기도 한다. 꽃잎의 중앙부에는 붉은 단심이 발달한다. 잎 길이는 약 5.2cm, 폭은 약 3cm로 작은 편이며 잎자루 길이는 0.8cm 정도이다. 잎은 달걀 모양

으로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끝이 약간 둔한 V자형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약하게 물결친다. 생육형은 가지가 위를 향해 자라는 직립형이며 성장력은 약한 편이라 가지가 다소 가늘게 자란다.

**참고문헌**

-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 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 천리포수목원(202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무궁화. 디자인포스트
-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 Alan Toogood(1999) RHS Propagating Plants. DK.
-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 Michael A. Dirr. (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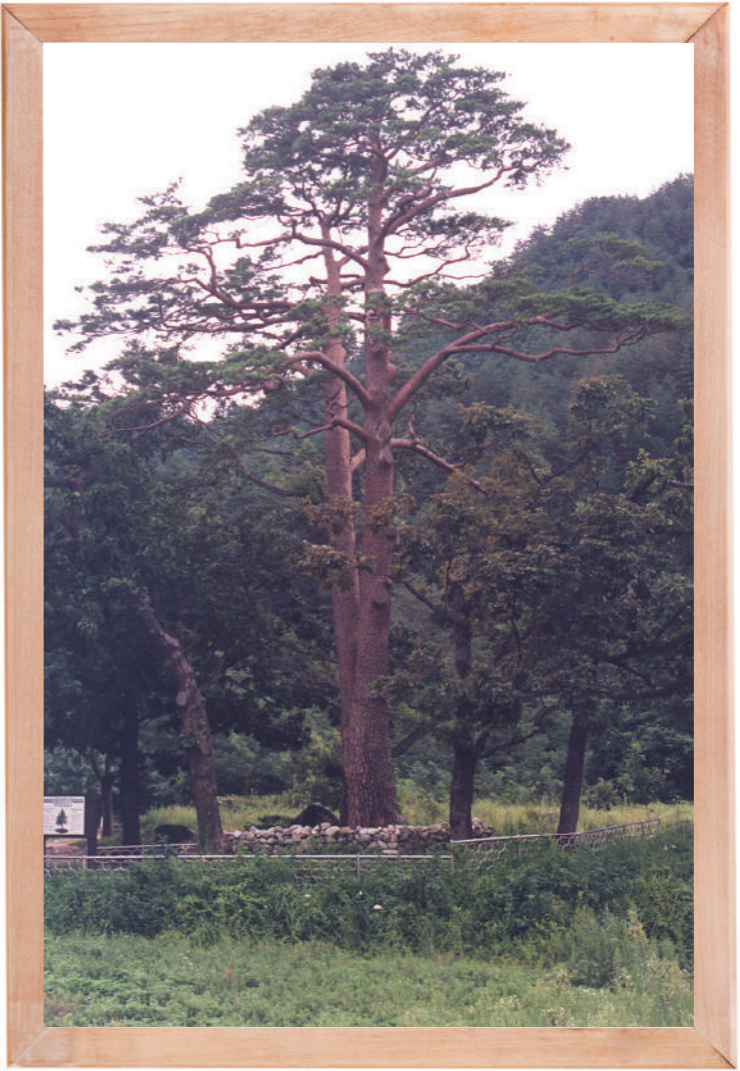
# 천도제 받은 삼산리 소나무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산림文學> 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 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역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들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의 만남』, 『슬숨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숨장 할아버지와 자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광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천연기념물 제359호로 지정된 「삼산리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는 가슴높이 둘레가 3,58m, 수고가 21m이며 지상 2,7m 부근에서 두 줄기로 갈라져 있다. 수세를 짐작하는 수관발달은 동서가 9m이고 남북이 21m로 노령목 임에도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나무의 나이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450년으로 기록했다. 노거수의 정확한 나이 측정은 매우 어렵다. 다행으로 이 소나무는 원줄기가 정상으로 자란 탓에 성장추를 사용하여 수령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거수는 공동이 발생되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천연기념물의 수령은 정확성보다는 당해 수목의 역사성 등이 우선임으로 수령이 많고 적음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소나무가 2008년도에 고사되었다. 노거수 관리 당국과 수목 보호 업체 등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고사를 막지 못했다. 그런데 이 천연기념물이 고사한 가장 큰 원인은 솔잎혹파리 피해이고 그다음은 치료 시술의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추정한다. 수목의 치료 시술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수세가 쇠약한 노령 목에 뿌리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다. 뿌리 수술은 지극히 노쇠하거나 병든 수목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후 수단으로 시행해

야 한다. 사정이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뿌리를 수술하여 나무의 생리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잔뿌리를 대량으로 훼손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다음 실패의 원인은 부적절한 토양관리다. 소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서 척박한 토양에서도 적응성이 높다.

이 소나무는 천연 양료 공급이 잘 안 되는 하천 변에 자라고 있어 유기질이 부족했지만, 유기질 비료를 대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나무를 웃자라게 했다. 모든 식물은 현재의 성장 환경에 가장 잘 적응되어 있다. 특히 노거수나 천연기념물처럼 수령이 높은 수목은 오랫동안

동안 그 자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적응이 잘 되어 있다. 따라서 웬만한 피해는 스스로 치유하는 자정능력이 있다. 하천가에 서 있는 노거수는 오랜 세월 많은 위험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병해충이 오면 스스로 면역물질을 생산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발밑의 흙이 무너지면 뿌리를 많이 뺀어 수체의 중심을 잡는다. 이와 같은 환경적응 능력을 감안하여 사람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돌을 옮겨 독을 쌓고 흙을 채웠다. 쓸모없는 지주를 세우고 비료를 주어 나무의 환경적응 능력을 저하시켰다. 그 결과, 나무를 보호한다며 쌓아 올린 석축은 뿌리 고사의 원인이 되었고, 과도하게 살포한 비료는 나무를 웃자라게 만들어 저항력을 떨어뜨렸다. 거기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겹쳤으니 지친 노거수가 고사될 수밖에 없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사된 기념물에는 낙뢰를 막을 피뢰침까지 세웠는데도 끝내 살리지 못했다. 천재에 인재가 겹쳐 나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 11월 어느 날, 이 소나무 앞에 삼산리 주민들이 모였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던 동수나무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술잔을 올렸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준 고마움을 한 잔의 술을 올려 위로 삼았다. 소나무의 넋이 있다면 나무를 지켜주지 못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이 나무의 죽음이 돈에 눈멀어 함부로 덤벼든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에 진월인(속칭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편작에게는 두 형이 있었는데 모두가 명의였다. 위문후 魏文侯가 편작에게 물었다.

“그대의 형제 중 누가 가장 뛰어난 의술인 인가?” 편작이 답했다.

“큰형의 의술이 으뜸이고 둘째 형이 그다음이며 제가 끝입니다. 큰형은 병이 나기 전에 병을 고칩니다. 환자가 아프기 전에 처방을 내려 병을 예방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둘째 형은 발병 기미를 미리 알고 치료합니다. 역시 사람들은 작은 재주가 있다고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이 심각하여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가 돼서야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나무를 돌보는 나무의사들도 한 번쯤 새겨들을 일인 것 같다. 🌲

# 이괄의 난 때 인조는 피난길에 밤나무의 밤 맛에 흠뻑 빠졌다?

시인·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조선 인조 때의 일이다. 나라에서는 큰 난리가 났다.  
이괄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해 버렸다.

인조는 그 전에 피난길을 떠나 신하들을 데리고 충청도 공주로 향했다.

인조 일행이 연기의 금병산을 지날 때 날이 저물었다.

이들은 금병산에 있는 절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인조 일행이 들이닥치자 절은 발각 뒤집혔다.

스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임금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야단났네. 우리 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주지 스님이 울상을 지었다.

그때 밤나무 숲을 돌보는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절에는 맛있는 밤이 있어요.”

“임금님이 밤을 좋아하실까? 다른 과일이 없으니 그거라도 바치도록 합시다.”

스님은 곳간에서 밤을 꺼내 구워 인조와 대신들에게 바쳤다.

인조는 대신들과 밤 한 개를 까먹더니 탄성을 내질렀다.

“오, 밤이 달고 맛있구려! 천하 별미야!”

곁에 있던 영의정 이원익이 맛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전하. 소신이 팔십 가까이 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밤은 처음 먹어 봅니다.”

인조와 이원익을 비롯한 대신들은 밤 맛에 흠뻑 빠졌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 밤새도록 밤을 까먹었다.

그러자 바빠진 것은 스님들이었다. 한쪽에서는 장작불로 밤을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에 밤을 찌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래도 스님들은 즐거웠다. 임금님과 대신들이 너무나 밤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인조 일행이 떠날 때 스님들은 임금님과 대신들을 위해 밤 몇 가마니를 실어 보냈다.

그 뒤 이괄의 난이 진압되어,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떠났던 인조가 서울로 무사히 돌아왔다.

어느 날 인조는 조정 회의에서 영의정 이원익에게 말했다.

“영상 대감, 연기 땅 금병산에 있는 절에 큰 상을 내려야겠소.”

이원익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절에 큰 상을 내리시겠다는니요? 어인 명이십니까?”

인조가 호통을 쳤다.

“영상 대감은 나보다 밤을 많이 까먹었으면서 그 절을 까맣게 잊으셨소?”

피난을 갈 때 허룻밤 묵었던 절 말이오.”

“아, 참! 그 절이오. 소신이 깜빡했습니다.”

인조는 절에 큰 상을 내렸고, 이때부터 그 절은 ‘밤절’이라 불리게 되었다.

밤절은 현재 없어졌지만, 절이 있던 지금의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의 작은 마을은 ‘밤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밤나무는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다. 한자로는 ‘울(栗)’이라 하는데, 나무 위에 열매인 밤송이가 매달린 모습을 본떴다.

키가 15-20미터에 이르며, 5-6월에 꽃이 피고 9-10월에 열매가 익는다. 꽃에서 따는 벌꿀이 유명하여, 밤꽃이 피는 철에는 양봉업자들이 밤꽃을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밤나무 열매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다. 탄수화물이 많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처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밤나무를 ‘밤나무’라 부르며 널리 이용했다.

밤나무 열매는 한방에서 ‘울자(栗子)’라고 하여 약으로 썼다. 몸을 보신하거나 만성 구토, 당뇨병 치료에 사용했다.

밤나무 재목은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철도 침목, 관짝,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쓰였다. 영국의 이름난 건물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밤나무 목재로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밤나무를 재배했다. 낙랑 시대의 옛 무덤에서 밤알 몇 알이 나온 적도 있다.

『고려사』에는 예종·인종 때 백성들에게 밤나무 키우기를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국대전』과 『동국여지승람』에는 밤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속대전』에는 밤나무를 재배하는 백성을 부역에서 제외하고 밤나무 목재를 얻기 위해 밤나무 보호 지역을 지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앞에 소개한 밤에 얽힌 이야기는 인조 임금의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떠났을 때의 일이다.

인조와 관련해서는 인절미와 도루묵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인조가 공주 땅에 이르렀을 때,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임금에게 떡을 만들어 올렸다.

마침 배가 고팠던 인조는 떡을 맛있게 먹었다.

“참으로 천하의 절미로구나. 이 떡 이름이 무엇이나?”

그러나 떡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쌀가루를 시루에 찌서 콩고물을 묻혀 먹는 떡인데, 그때까지 이름도 없이 지내 왔던 것이다.

인조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떡 이름을 ‘절미’라고 지었다. 떡 맛이 천하의 절미라고 말이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떡 이름을 떡을 바친 사람의 성을 붙여 ‘임절미’라고 불렀다. 그 뒤 임절미는 발음이 바뀌어 ‘인절미’가 되었다.

또한 인조가 공주 땅에 머물 때의 일이다. 한 백성이 ‘묵어’라는 생선을 잡아 임금에게 바쳤다.

인조는 마침 시장했던 참이라 생선을 아주 맛있게 먹고 생선에 ‘은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되어 서울로 돌아온 인조는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생선을 밥상에 올리게 해 맛보았는데, 옛날과는 달리 별로 맛이 없었다.

크게 실망한 인조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생선의 맛이 별로구나. 도로 묵어라 하여라.”

그 뒤부터 묵어는 은어에서 ‘도로 묵어’가 되었고, ‘도로 묵어’는 ‘도루묵’이 되었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을 떠났는데, 하루는 수라상에 도토리묵이 올라왔다.

도토리묵을 맛있게 먹은 선조는 서울로 환궁한 뒤에도 계속 도토리묵을 찾았다. 그래서 도토리묵이 늘 수라상에 올랐다.

이 도토리묵은 지금의 상수리나무 열매인 도토리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임금 수라상에 오른, 도토리’라 해서 ‘상수리’라 불리었고, ‘상수리’는 ‘상수리’가 되어 상수리나무의 이름이 되었다. 🌳

# 노거수 산책 (8) 기제 장승빈도(양지암) 팽나무숲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느릅나무과 팽나무는 한반도 남부 산기슭이나 해안, 하천, 경작지에 출현하는 낙엽교목이다. 장수목으로 노거수가 많아 당목이 되거나 마을숲을 구성하는데 국내 천연기념물 팽나무는 4본이고 수림지는 6곳이다.



거제 장승반도 조사구에서 가슴높이둘레 150cm를 넘는 팽나무 126개체가 생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가슴높이둘레가 180cm를 넘어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체는 83본으로 이 표본집단의 평균 제원은 가슴높이 둘레 255cm, 수고 15.6m, 수관 폭 16.8m이고, 가슴높이 둘레 300cm를 넘는 보호수급 개체는 16본이며 최고 제원은 435cm이다. 수형은 단간 21본(25%), 쌍간 30본(36%), 다간 32본(39%) 이었다. 수고 대비 수관 비율은 1:1.08로 낮은 것은 수고성장력이 좋은 중·장령 개체가 많고 이웃하는 교목의 수관간섭 영향이다. 조사대상 83본의 생육영역 안에 있거나 접하는 종의 출현빈도 조사에서 상층은 팽나무, 곶술, 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굴피나무, 중층은 후박나무, 때죽나무, 졸참나무, 비목나무, 팔배나무, 예덕나무, 하층은 사스레피나무, 천선과, 산뽕나무, 까마귀쪽나무, 섬딸기, 초피나무, 보리수, 만경수목은 송악, 마삭줄, 노박덩굴, 남오미자, 보리밥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후박나무는 장승반도 해안 매립지 녹지공간에 1980년대 후반에 식재한 장령목 및 1990년대 식재한 국도14호선~농포로 중령목 열매가 조류에 의해 번식된 것으로 보인다. 출현빈도가 낮은 구골나무, 사철나무, 팽팡나무, 종려도 조사구 내 자생 개체가 확인되지 않아 주거지와 학교에서 이입된 개체로 판단된다. 조사구 팽나무는 장승반도 중간구역 북서사면 해발 25~55m 범위 내 출현 개체가 많았다. 이는 미기후, 지형과 토질, 경작지(田), 그리고 기존식물 종조성이 팽나무 발아와 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현 개체가 적은 남동사면은 곶술 순림이 넓게 분포하여 O층~A층이 얇고 강한 일조와 해풍에 산림 습도는 낮고 경작 규모도 작았다. 팽나무는 조류 매개로 증식되기 때문에 먹이가 되는 곤충이 서식하는 경작지 및 휴경지가 넓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북서사면은 조류서식 호조건과 일치하였다.



## 거제 장승반도(양지암) 팽나무숲 조사구 일원

소재 : 경남 거제시 농포동 88-1(대표지번)



조사구 팽나무 개체군 생육특성과 생육지 환경을 대조구 14개소와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최대 규모 팽나무 수림지로 알려진 제주 명월리 팽나무군(群)보다 많은 개체가 확인되었다. 조사구 팽나무는 산지에 분포하고 민속신앙 대상이 아니며 근연종과 종조성을 이루지 않아 차별성을 가진다. 대조구 팽나무는 바다·하천·마을에 접하고 말채나무·푸조나무·개서어나무·느티

나무가 포함된 혼효림으로 당숲·비보림·방풍림·방조어부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구 팽나무는 쌍·다간 수형이 75%를 차지하며 이령목이 많아 지속가능성이 높다. 대조구 팽나무는 단간 수형의 동령목이 많고 중·장령목이 없거나 적어 지속가능성이 낮다. 조사구 팽나무는 조류 매개로 모수에서 후계목군이 형성된 산림수목이고, 대조구 팽나무는 주로 식재를 통해 조성·유지한 생활권수목으로 서식지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산지에 군생(群生)하고 보호수급 제원을 가진 개체가 많다는 것은 생태적 가치와 함께 보호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팽나무 번식과정 고찰을 통하여 조류 먹이원이 되는 열매를 가진 수종의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구 일원은 위치·지형·지질·미기후가 갖는 고유환경, 오랜 경작과 근래 개발행위로 인한 교란, 온난화와 극한적이고 불규칙적인 기상, 소나무류 해충 발생 등에 의해 곰솔군집이 쇠퇴하고 팽나무를 비롯한 낙엽교목과 생활권 상록수종이 이입되는 천이가 뚜렷하였다. 그리고 조류를 매개로 번식하는 수종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저향고(移低向高) 가설을 설정하여 생활권수목이 산림수목이 되는 천이과정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거제 장승반도(양지암) 잠재식생은 자연번식이 유리하고 생존기간이 긴 팽나무와 후박나무가 우점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주. 이번 호 <노거수 산책> 은 2024년 10월 18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생태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 『거제 장승반도(양지암) 팽나무 분포지 생태적 해석』 초록 중 일부를 발췌, 게재하였습니다.^^ 🌳

### 회원사변경 (2024.10-12)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주)영재조경	김중용	대표자,연락처변경	대표자:최봉순→김중용, 핸드폰:010-9477-8300
성막조경	김우용	주소변경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창녕대로 30-1, 2층
남도조경	김양수	상호,일반전화,팩스변경	상호:남도농원→남도조경, 일반전화:042-254-0279, 팩스:042-256-5885
한선조경	이용규	주소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51번길 43, 초록마을3단지 계룡리슈빌 308동 2201호
(주)명일건설	동일부	주소변경	경기도 파주시 해울1길 31, 이타워2 제6층 621호
주식회사 산과들	최선부	상호변경	주식회사 산내들→주식회사 산과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 회비납부율(11.30일 기준) : 임원 93.5%, 일반회원 : 61.84%



## 장학기금 기탁 안내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회원자녀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운영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기금 기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간 기탁구좌 : 1구좌당 일백만원
- 기탁 약정기간 : 5년
- 기탁금 입금처 : (농협) 355-0060-5187-33 한국조경수협회



## 2025년 (사)한국조경수협회 장학생 선정 공고

(사)한국조경수협회 장학위원회의 장학금 기탁으로 2025년도 협회 장학생을 선정하여 제59차 정기총회시 장학금을 수여 격려코자 합니다.  
특히, 올해 고등학생 2명 추가 선정은 조경 및 임업관련학과(\*비회원도 해당)에게도 문호를 열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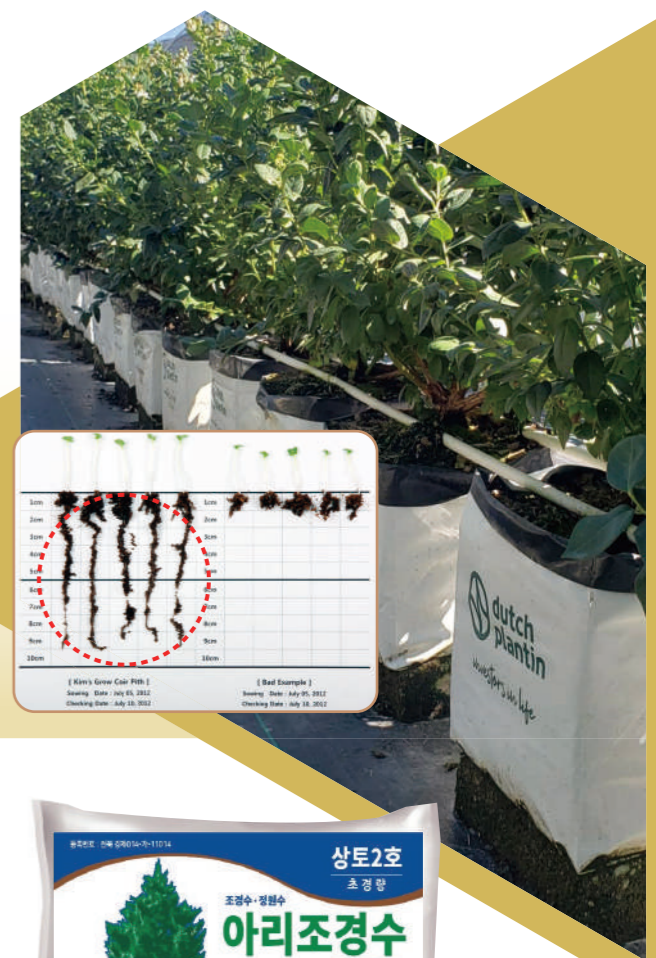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사)한국조경수협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이며, 당해연도까지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의 자녀 또는 직계손  
※ 고등학생(2명) : 조경 및 임업관련학과(\*비회원도 신청가능)
- **신청자격**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1인당 지급액** : 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추천자격** : 지회장
- **추천인원** : 지회당 1명 추천 단, 지회원 50명 이상 지회 2명 추천가능
- **선정인원**
  - 대 학 생 : 4명 (조경관련학과 3명, 일반학과 1명)
  - 고등학생 : 2명 (회원의 자녀 또는 직계손)
  - 고등학생 : 2명 (조경 및 임업관련학과 \*비회원 신청가능)
- **접수기간** : 2025. 1. 15.(수)
- **지원방법** : 원본 우편제출 (접수일까지 도착 우편물만 유효함.)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 공지사항 참조

## 코코피트, 피트모스 전문업체 (주)김스트레이드

뿌리 발육과 작물 생육이  
탁월한 원재료만 사용

원재료는 해외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료 채취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간간하게 검수 한 후 수입·공급합니다.



### 조경수 전용 상토

-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를 사용
- ✓ 입자가 굵고 분진이 적은 피트모스를 원료로 사용
- ✓ 입자가 굵고 단단한 펄라이트를 원료로 사용
- ✓ 우수한 통기성과 배수성을 오래 유지함
- ✓ 균일한 성분 조성 과 배합으로 빠르고 안전한 포트 재배에 적합



### 코코피트 오픈탑

- ✓ UV 처리된 포장으로 별도의 포트(컨테이너)가 필요없음
- ✓ 약 5배로 압축된 건조상태의 블록형 제품
-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25cm 이하 규격)
- ✓ 염류가 제거된 고품질 코코칩 함유(30cm 이상 규격)
- ✓ 공급 규격 : 15cm, 20cm, 25cm, 30cm

복원우수      적재편리      친환경적



### 코코피트 펠릿

- ✓ 포트 없이 양묘 재배 가능
- ✓ 이식할 때 상토가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아 편리
- ✓ 일부제품 디자인 특허 보유
-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제품
- ✓ 공급 규격 : 직경 40mm, 50mm, 70mm, 100mm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8, 효성인텔리안 618호 (아현동)    www.kimstrade.com  
TEL. 02-338-9962 | H.P 010-5495-9962 | E-mail. kimstrade@kimstrade.com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등록번호 : 100102-04781